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ear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구인 : 보스톤 한인회장 찾습니다

봉사에 매진할 분으로 1만불 낼 수 있는 사람
김경원회장, 다음 회장에 부채 절대 안넘긴다
등록마감 11월 18일, 현재까지는 신청자 없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톤 한인회가 새 한인회장 구인광고를 게재했다. 마감은 올해 11월 18일이다. 30세 이상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 한인이면 지원가능하다. 단 정회원 100명의 추천서와 1만불의 공탁금을 지참해야 한다.

익숙한 회장 구인광고에 한인들도 익숙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침묵이다. 한인회보에서 광고를 시작한 게 2주 전이다. 물론 탐색전은 물론 아직까지 입질도 없다. 행여 언감생심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문제는 그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고 있다.

현임 김경원 회장은 2015년 5월에 취임했다. 그럼에도 한인회 측은 올해 말로 임기 완료를 상정해놓고 한인회장 모집 공고를 게재했다. 김경원 회장은 “임기가 12월 말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간에 임시적으로 들어가서 했는데 4월까지 해야 하는지



작년 5월 2일 렉싱턴 소재 엘크스 클럽에서 열린 보스톤 한인회장 취임식, 김경원 현회장과 한선우 전 한인회장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모르겠다.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조언을 받고 싶다” 고 밝혔다.

사실 한인회는 아직 선관위도 꾸리지 못

했다. 한인회의 선거관리운영규정에 따라 선거일인 12월 18일 60일 전에 공고를 내야 하기에 “일단 회장 구인 >>3면으로 계속



11월 1일부터 오바마 케어 공개 등록 시작

기존 가입자 저렴한 보험으로 변경 가능
무보험자는 오바마케어 신청시 정부보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오바마케어 공개등록 기간이 11월 1일부터 시작된다. 현재 보험이 없거나 또는 현재 보험 변경을 원하는 한인들은 매스헬스커넥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 공개보험거래소인 헬스커넥터에 기존 가입자들의 경우 좀더 저렴하고 적합한 보험을 찾아 변경이 가능하다. 또 현재 보험이 없는 무보험자의 경우 헬스커넥터를 통해 보험을 신청하면 정부 보조 크레딧을 받을 수도 있다.

신청을 원하는 한인들은 www.MAhealthconnector.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이민법
상법
만행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a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JAPAN STOPOVER PACKAGE

일본 3박 패키지 (항공권 포함) 1인 \$1500 부터

IACE TRAVEL 문의전화
1.617.424.8956
1.866.619.4223

웹사이트 : www.iace-korea.com
이메일 : info@iace-korea.com
영업시간 : 월-토 12PM-9PM (휴일, 공휴일 제외)

BERKSHIRE HATHAWAY | N.E. Prinos Properties
Financial Services

에나 정
최고의 전문가로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지니스 · 상업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GRS, SRES, ABR

617.780.1675
aenaj@ownnewengland.com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JEI 세능교육
JEI English JEI Reading & Writing
JEI Math JEI Problem Solving Math
Pre-K부터 초등까지

FDart 학문판매 단지
www.jeilearning.com

JEI Burlington
11 Adams St. Burlington, MA 01803
TEL: 781.362.6777
EMAIL: Burlington@jeilearning.com

한국이야기로 따뜻했던 한국전 참전용사 오찬

총영사관 주최 2016년 한국전 참전용사 오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올해 85세인 알버트 흄스 씨는 시니어센터에서 인 기남이다. 그가 들어서면 모든 여성 시니어들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60대 후반으로 보일 정도다. 사진을 찍어왔던 그는 한국전 당시 찍었던 사진이 있다며 자랑했다.

자신이 이탈리아인 계라는 거북씨는 제주도 중 국군 포로 수용소에 2년간 갇혀 있었다고 밝혔다. 날씨는 춥지 않아 정말 좋았다고. 프랑스계 라는 한 참전용사는 자신이 압록강까지 올라갔 으며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했다. 두번이나 부 상을 당해 퍼플하트 장식을 받았다고 금장을 보 여주었다.

보스톤 총영사관에서 마련한 오찬 테이블에 서는 한국전 이야기에서부터 현재 살아가는 이 야기까지 나누는 담소 속의 공통화제는 한국이 었다. 1년에 한번씩이지만 여전히 잊지 않고 진 행하는 참전용사 초청 감사오찬은 미국사회 한 국전 참전용사들에게 한국이란 이야기를 환기 시키는 주요한 자리다.

이 오찬장에 모인 255명의 참전용사들은 모 두가 80대 중후반이다. 휠체어에 의존하는 용사 도 있었지만 악수를 청하며 악력을 자랑하는 처

기 어린 용사도 있다. 보스톤 총영사관이 주최 한 오찬장에서 늘 참전용사들과 관계자들의 서 명한 배너를 들고 참석하는 캔 스위프트 씨는 “3일전에 복강 수술을 했다.” 고 말했지만 씩 씩하게 테이블 사이를 누비며 체력을 과시했다 .

3년째 참전용사 오찬을 주재하는 엄성준 총 영사는 “3만6570명이 사망하고, 3284명이 한 국전 당시 실종됐다” 며 “한국을 수호하기 위 해 희생한 용사들과 모든 참전용사들에게 한국 을 대신해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 밝혔다. 올해 오찬은 지난해와 같은 프레밍햄 소재 웨라톤 호텔이었다.

특히 이날 오찬에는 샘캠 목사가 얼마전 65년 만에 유해로 고향을 찾은 케임브리지 토박이 로 날드 스파크스 상병의 일화를 이야기했다. 19세 에 참전했다 중공군에게 체포된 후 실종됐다. 스파크스 상병의 부모와 형제의 한서린 유해 찾 기 노력은 3대째인 밥 스파크스 씨의 대에 이르 러 결실을 거뒀다. 그는 케임브리지에 돌아와 에버렛 소재 묘지에 안장됐다. 샘캠 목사의 이 야기를 들던 이경혜 시민협회장은 눈시울을 적 시기도 했다. >> 3면으로 계속



참전용사들과 관계자들이 서명한 배너를 들고 참석한 캔 스위프트 씨(오른쪽)



김경원 한인회장 내외(오른쪽 끝)와 엄성준 총영사 내외 (테이블 왼쪽 끝) 그리고 앨버트 맥카시 한국전 참전용사 디렉터, 존담스 참전 용사회 사령관이 지리한 헤드테이블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2면에 이어서

앨버트 맥카시 미 한국전 참전용사회 디렉터는 “한국 정부와 총영사관이 여전히 잊지않고 우리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다” 며 기립박수를 권했고 참전용사들은 엄 총영사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존 탐슨 한국전 참전용사회 사령관은 “우리는 한국의 자유를 지키는 공동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모였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북한의 위협 아래 있다. 과거 한미양국의 협력은 성공했고 앞으로도 성공할 것” 이라고 계속된 한미 양국의 공조를 강조했다.

약간 늦게 도착한 프란시스코 우레나 MA주 보훈장관은 참전용사들의 노고에 경의와 한국정부의 초대에 감사사를 표했다. 정치인답게 우레나 보훈장관은 참전용사들에게 주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끝까지 남아 대화를 나누며 의견을 듣고 사진을 함께 찍었다.

이날 행사에는 강경신, 최덕중, 김희권, 김태혁 한인 한국전 참전용사 4명도 함께 자리했다. 한인 참전용사들은 몇 명 더 있지만 병환으로 참석을 못했다는 것이 강경신 참전용사회장의 설명이었다.

이외 김경원 한인회장 내외, 한선우 평통회장, 유영심 노인회장, 이경해 시민협회장, 김병국 한미예술협회장,

김우혁 재향군인회장, 정재형 태권도 협회장, 안병학 한인회 이사장, 장수인 평통수석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NEC)에 재학

중인 소프라노 강수연씨가 한미 양국의 국가와 팝송 <유레이즈미업>을 연주했다.

editor@bostonkorea.com



이날 행사에는 강경신, 최덕중, 김희권, 김태혁 등 한인 한국전 참전용사도 함께 자리했다



오찬장에 모인 255명의 참전용사들은 모두가 80대 중후반이다

보스톤 한인회장 입후보 모집공고



"입후보 없을 때 고문단, 기관단체장 전체회의"

▶▶1면에 이어서

공고만 우선적으로 냈다” 는 것이다. 김경원 회장은 “고문단은 이름만 있지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문단으로 선관위를 꾸리지 않겠다. 폭넓게 선관위원을 꾸릴 예정인데 확정은 되지 못했다” 고 말했다.

김회장은 “원칙적으로 유권 해석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한인회는 아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진행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한인회장 입후보자가 11월 18일까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한인회는 고문단과 기관단체장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사태를 해결할 것인지 회의를 할 예정이다” 라는 게 김회장의 입장이다. “한인회장 후보가 없다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 뉴욕 등지와 달리 여기는 없다. 그것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한인회장 뿐만 아니라 보스톤의 한인들이 고민을 해야 한다” 는 것이다.

이번 한인회장은 과거처럼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지는 않다. 한인회장으로서 전임 한인회의 문제를 떠안거나 부채를 물려받을 것이 없다. 김경원 회장은 “한인회 신문인 한인회보로 인해 쌓여있던 빚을

이제 거의 다 갚았다. 3천불 정도 남았는데 임기 때까지 못 갚으면 사재를 털어 해결하는 게 예의다” 고 못박았다.

신임 한인회장은 자신의 비전을 갖고 자신의 일을 추진하면 된다. 김회장이 일궈 놓 한인회에 자신의 비전만 얹으면 되니 한결 가벼운 임기다. “소신을 갖고 일할 사람이 나서면 된다. 돈이 없어도 리더십이 있다면 각자 5천불씩 10명만 도와도 충분히 회장직을 수행할 것” 이라는 게 김회장 말이다.

연임을 묻는 질문에 김회장은 “한인회장 임기가 너무 짧다.” 고 인정했다. “한해 업무 파악하고 다음해는 일하고 그리고 마지막해는 다음 회장을 훈련시키는 3년 정도의 임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는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해 하는 것보다 스스로 마음을 정해서 하는 사람은 다르다” 며 신임회장을 찾는데 무게를 두었다.

11월 18일까지는 불과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정회원 100명의 서명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움직여야 한다.

editor@bostonkorea.com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SAT Plus Fall Schedule 2016

Saturday Class Start September 10, 2016

Class	Time	
PSAT / SAT prep	9:00 AM – 11:00 AM	11th Grade
SAT prep	11:30 AM – 1:00 PM	10th Grade
SAT prep	1:30 PM – 3:00 PM	9th Grade
SAT I prep	4:00 PM – 6:00 PM	12th Gr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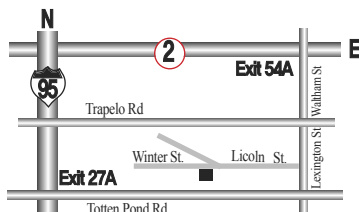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모금 만찬 성황리에 마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예술을 통해 한국을 알리고 한인들의 문화적 삶을 풍부케 하는 보스톤 한미예술협회(Korean Cultural Society of Boston)의 모금 만찬에 한인사회 지도자들과 후원자들이 모여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지난 10월 22일, 웰슬리 대학교 내의 칼리지 클럽에서 열린 모금 만찬은 올해로 제 5회를 맞이했다. 행사에는 엄성준 보스톤 총영사, 조은경 뉴햄프셔 한인회장, 이경해 시민협회 회장, 한순용 한국학교 협의회 회장 등과 예술인, 후원자 등 총 60여 명의 인원이 참가하여 흥겹고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주빌리 트리오(정유정, 석다연, 황설기)의 재즈 공연으로 시작된 행사에서 신임 정정욱 이사장은 엄성준 총영사와 이충시 전 이사장, 그리고 김병국 회장 이하 모든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엄성준 총영사는 축사에서 보스톤 한국사회와 미국사회를 음악, 미술, 문학을 통해 연결시키고 있는 협회의 노력이 계속되도록 격려했다. 이스트 보스톤 세이빙즈 은행의 사장 겸 CEO인 리처드 가베그나노(Richard J. Gavegnano)도 축사에서 협회와의 협력을 계속할 것을 약속해 주었다.

김병국 회장은 내년의 행사 계획을 소개한 후, 지난 한 해 동안의 각종 행사를 비디오로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협회는 내년에도 예년과 같이 보스톤 미술관의 설날 축제를 주관하고, 3월에 브랜다이스 대학과 텡스 대학에서 열리는 국악 공연, 봄과 가을의 실내악 음악회, 10월의 연례 미술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4일에는 중국공연예술재단(FOUNDATION FOR CHINESE PERFORMING ARTS)과 협력하여 그래미상 수상한 과거 현악 사중주단과 보스톤 콘서버토리의 김정자 교수(피아노)가 출연하는 음악회를 뉴잉글랜드 콘서버토리(NEC)의 조던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이재욱 예술가가 주관한 이날 진행된 미술품 경매에서는 지역 예술가들의 지원이 쇄도했다. 조각가 피터 헤인즈를 비롯한 다수의 외국 작가들과 유수례, 성은경, 황지영씨를 포함한 여러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경매되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 행사 후반부 행운권 뽑기에는 올해에도 비빔, 매주, 서울 설렁탕, 영차우루에서 기부한 경품이 제공되었다.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김병국 회장은 후원자들의 관심과 도움 덕분에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었다며 만찬 참석자 및 지속적인 후원자들과 공공단체들에게 큰 감사의 뜻을 전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엄성준 총영사는 축사에서 보스톤 한국사회와 미국사회를 음악, 미술, 문학을 통해 연결시키고 있는 협회의 노력이 계속되도록 격려했다(사진제공 전부희)



조각가 피터 헤인즈를 비롯한 다수의 외국 작가들과 유수례, 성은경, 황지영씨를 포함한 여러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경매되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사진제공 전부희)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제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렌드스토어" 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우리가족 면역력 지킴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홍삼의 주요효능 | 면역력 개선 / 통맥경화, 고혈압 예방 / 혈당강하, 당뇨 합병증 예방 / 혈액순환 개선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가려움증 / 간기능 개선

**240g 홍삼정 구입시
30g(\$31 상당)
추가 증정**



**FREE
GIFT**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WALMART Burlington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주문 서비스

FedEx로 주문 다들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이민 관련서류 신청 수수료 갱충

6년만에 첫인상, 12월 23일부터 적용
이민자들 수수료로 운영되는 이민서비스국
이민자들에게는 서비스보다는 무시안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취업비자, 영주권, 시민권 등 이민신청 서류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 미 이민국(USCIS)은 24일 이민 신청서류 비용 최종 인상안이 연방관보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안은 12월 23일부터 적용된다.

이민국의 운영 비용은 거의 전액이 이민자들의 신분변경 수수료에 의해 충당된다. 미 이민법에 따르면 이민국은 매 2년마다 이민법을 집행하기에 충분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민국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인상은 지난 6년만에 첫 인상이며 평균 21%이 비용이 인상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많이 신청하는 비이민취업청원(I-129)은 \$325에서 \$460으로 42%인상됐다. 투자이민신청(I-526)은 \$1500에서 \$3675로 145% 갱충 뛰었다.

영주권 취득시 신청하는 취업이민청원(I-140)은 \$580에서 \$700로 20%인상됐으며 영주권신청(I-485)의 경우 985에서 1140으로 16% 올랐다.

다만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595에서 \$640으로 가장 인상폭이 낮은 8% 인상에 그쳤다. 그러나 지문채

주요 인상 내역 (12월 23일 발효)

신청내용	양식	변경전	변경후
시민권신청	N-400	595	640
투자이민청원	I-526	1,500	3,675
비이민연정신청	I-539	290	370
취업이민청원	I-140	580	700
영주권신청	I-485	985	1,140
비이민취업청원	I-129	325	460
고용허가신청	I-765	380	410
영주권카드교체	I-90	385	455

취료 \$85를 더하면 \$725에 달해 시민권 취득시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됐다. 다만 이민국은 연방빈곤선 150% 이상 200% 이하인 신청자들에게는 신청료를 \$320로 낮춰준다. 4인 가족 기준 \$36,000에서 \$48,600 이하의 소득이다. 이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은 새로운 양식인 I-942를 이용해 신청해야 한다.

이민국은 이번 인상이 이민국의 비용증가분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민국은 "이번 인상은 2010년 11월 이래 처음으로 단행한 것이다. 우리는 수수료 인상이 신청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었기에 2012, 2014년 연속 수수료 인상을 기피했었다" 고 밝혔다.

미 이민국은 지난 5월 4일 해당 인상안을 관보에 게재해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동안 436개의 의견을 받아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hsb@bsotonkorea.com



지난해 성묘한 한인교회에서 열린 시민협회 주최 시민권 취득 무료 워크샵에 참석한 한인들의 모습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김시훈 Sihun Kim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환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환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상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Frank Y. Shin, DMD
현 **To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업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입니다.



업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영화 <밀정>의 최정화 프로듀서가 말하는 <밀정>의 숨은 이야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한국에서 750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밀정>은 실화적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다. 삶은 흑과 백 이런 이분법적 사고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 영화는 일제 강점기를 통해 보여준다.

살아가면서 현실은 의지에 반하는 선택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그 결과를 모른채 어느 한쪽을 택한다. 순간의 선택에 의해 때로는 영웅이 되고 또는 반역자가 되기도 한다. 역사는 무심하게 그 사이를 가르고 사실을 기록한다. 그런 면에서 밀정은 우리의 현실과 밀착되는 부분이 있다.

일제시대는 상당부분의 삶이 강요로 얼룩져 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결코 우리 자신을 그 시대의 강요된 삶에 치환해 넣지 않아도 현실에서 충분히 이를 경험한다. 의지와 현실 이해 사이의 갈등. 영화 밀정은 그 갈등을 비집고 들어가 당시 인물들의 선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미국을 방문중인 영화 <밀정>의 최정화 피디가 10월 24일 보스톤코리아 사무실을 방문해 영화에 대한 숨은 이야기를 나눴다.

밀정을 본 독자들과 보지 않은 독자들도 있다. 밀정에 대해 설명해달라.

밀정은 1920년대 일제 강점기가 배경이다. 많은 독립운동단체 중의 하나인 의열단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의열단은 무장투쟁을 선택했던 독립군으로 여러 독립운동 노선 중 강력한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단체였다. 단순하게 독립지사, 친일파 이분법적으로 이야기를 접근한 것이 아니다.

황옥경부족과사건이 모델이다. 사건의 주인공 황옥이란 인물에 대해 친일파와 독립지사가, 역사학자의 평가가 갈린다. 그 시대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갈등이나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친일파 또는 저렇게 하면 독립운동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있었

을 것이다. 그시절을 살았던 선조의 고민과 갈등을 담았다.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하신분들에게 잊고 있었던 과거 독립 선열,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영화라 생각한다.

밀정을 보다보면 암살, 덕혜옹주 등 일제 치하의 시대물이 연상된다. 밀정은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최초 기획 단계 팀이 따로 있다. 황옥경부사건이 특이하다. 이 사건은 드라마틱 소재를 많이 가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실패한 사건이다. 그래서 안타깝다. 이 드라마틱한 사건이 이야기의 단초였다. 역사 팩트만 살을 붙이는. 영화 초반은 김상옥 열사 사건이다. 김상옥 열사 사건도 임팩트가 강했던 사건이다. 김 의사 역시 의열단이었다. 그런 것들을 믹스를 하면서 영화적인 구성을 만들어 나간 것이다.

프로듀서가 보는 영화 밀정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프로듀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프로듀서의 역할을 설명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혼동한다. 드라마 연출자. 영화에서 프로듀서는 제작자이다. 회사를 직접 제작하는 제작자가 있고 프리랜서로 영화 전체를 매니지 하는 프로듀서가 있다. 이 영화에서는 후자의 역할을 했다. 영화의 기획단계에 합류해서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감독과 제작자와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다. 쉽게 얘기 해서 캐스팅 역시도 함께 상의 하고 장소 헌팅, 로케이션 지역에 대한 섭외, 전체적인 스케줄링, 첫 번째 결정을 내리는 사람, 온갖 잡일을 다하는 사람이다.

밀정의 경우 모티브가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가장 아팠던 시기이다. 촬영 시작 전에 몇 번이고 상해 임시정부를 갔었다. 거기에는 그분들의 노력이나 흔적이 남아 있다. 고민하고 조심해야 했던 것이 자칫 영화의 포인트 하나가 빛나기도 이분들을 욕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칫 팩트만 가져가면 영화다운 맛이

없어진다. 이 두가지를 잘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많았다. 저뿐만 아니라 감독, 배우들도 모두가 무거운 짐을 느꼈다. 사실 무시해도 누가 뭐라할 것은 아니었지만 그곳에 가서 보니까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만들어 완성품을 내놓으면 관객들의 몫으로 넘어간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만들었다 해도 관객들이 봐줄 때 그렇게 안봐주면 잘못 만든 것이다. 다행히 한국에서 흥행하면서 댓글들이 좋은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다. 애써서 지키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댓글들이 올라와서 고마웠다. 흥행 여부를 떠나서 나머지 반쪽을 채워준 것으로 본다.

촬영은 어디서 한 것인가. 밀정 촬영지 중에서 프로듀서로서 이곳은 꼭 가봐라 하고 추천할만한 여행지가 있는가.

한국에서 60% 나머지는 중국에서 40%를 찍었다. 중국의 상해에는 20년대를 재현해 놓은 세트장이 있다. 많은 중국영화도 그곳에서 찍는데 그곳 3군데 세트장에서 나눠서 40%를 촬영했다.

상해에 가면 상해 시절을 재현놓은 큰 세트장이 있다. 일반적인 관광지다. 그곳을 보면 그 시절의 상해가 이랬구나 느낄 수 있다. 나머지 두군데는 일반에게 공개가 안되는 곳이다. 이 세군데를 합쳐서 밀정투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영화와 실제는 다르다. 영화는 세팅을 해놓고 찍는다. 영화의 그 장면을 그대로 보겠다고 하면 실망한다. 다만 그 시절이 이랬구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구나 하는 느낌으로 돌아보면 좋을 것 같다.

밀정이 1천만을 돌파했는가. 혹 그렇지 못했다면 다른 강력한 영화 때문인가?

7백 50만에서 멈췄다. 시기라는 것이 있다. 3주를 1위를 달렸었다. 뒤이어 많은 영화들이 나오면서 동력이 약간 떨어졌다. 천만을 흔하게 말씀 하시는데 대한민국민 20%가 영화를 본다는 얘기다. 700만을 넘어도 엄청난 흥행을 거둔 것



영화 <밀정>의 최정화 프로듀서

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을 꼭 주의해서 보라' 하고 권장해 주실 장면이 있는가?

전체 다가 아닐까요(웃음) 아마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을 것이다. 송강호 씨(주인공 이정출 역)가 교도소에서 출소해서 담배 피고 걸어가 다 수레에 실려가는 시체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다.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가 정말 많다. 송강호 씨가 연기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그장면에서 "너무 작소" 라는 대사가 너무 크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여주인공 캐스팅 시 1순위가 키작은 여자였다. 여기에는 그 시절의 조선, 우리가 살았던 그 나라가 그만큼 힘이 없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엘리트들이 나라를 팔아먹고 했던... 그만큼 작았던 나라. 힘이 약했던 나라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연계순의 역할도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 헝가리 폭탄 기술자도 존재하는 인물. 이 사람의 시체를 봤을 때 너무나 슬프고 아픈 현실이 보인다. 작고 작은 시체를 보고 오열하는 송강호의 모습... 그 틈을 가지고 보면 한국에 말도 안되는 사건이 오버랩하면서 반성하고 느끼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ditor@bostonkorea.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작년 브루클라인 소재 보스톤한국학교에서 열린 어린이 동요축제

한국학교협의회 어린이 동요 축제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가 주최하는 어린이 동요축제가 12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브루클라인 소재 보스톤 한인교회에서 열린다. 동요축제는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 (NAKS-NE) 한국학교 학생, 교사 및 학부모들이 참가할 수 있다. 참가는 각 지역 한국학교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각 학교별로 최대 2팀(1팀이 한국씩)씩 참가할 수 있다. 한팀만 참가할 경우 2곡까지 부를 수 있다. 전래 동요, 창작 동요, K-Pop 및 기타 한국어로 된 모든 곡들은 발표곡으로 선정할 수 있다. 행사 후에는 참가한 모든 학생들에게 소정의 선물이 주어질 예정이다. 동요축제는 어린이들에게 한글로 된 동요를 널리 알리고 맑고 고운 동심을 키우기 위한 취지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동요축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재미 한국 학교 협의회 홈페이지 (www.naks-ne.org)를 통해 알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한순용 협의회 회장 (soonyhan03@gmail.com) 혹은 박지에 총무 (jiae@live.com)에게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NE 시민협회 제4차 차세대 리더십 컨퍼런스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시민협회는 11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케임브리지 소재 하버드 법대에서 (제 4차 차세대 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차세대-지도자 되는 길을 주제로 펼

쳐질 이번 컨퍼런스에는 보스톤 월시 시장의 수석보좌관 다니엘 고, 보스톤 시장의장 미셸 우, 연방정부 고용차별방지국 (US EEOC) 케네스 안 보스톤지국장, 그리고 콜롬비아대학 심리학 교수 리사 손 박사가 참여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티븐서 시민협회 사무총장 info@kacne.org, 혹은 행사위원장 추경석 kccb030@gmail.com 그리고 이경해 회장(508-962-2689)에게 문의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뉴욕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SHELTER ROCK CHURCH에서 간성탕한 모습

음향 전문가 교회 음향 세미나 5일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음향 전문가의 교회예배관련 음향세미나가 11월 5일 토요일 우번 소재 보스톤 온누리교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최된다.

음향 전문회사 Sound Park NY의 주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알기 쉬운 교회 음향"이라는 주제로 예배에서 음향의 중요성, 기본 음향 이론, 음향의 실제 활용 방법과 질의 응답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이충제씨가 주 강사를 맡는다. 이충제 씨는 올해 1월에 열린 보스톤 온누리교회 음향 세미나에 이어 이번 제 2회 음향 세미나에서도 주 강사로 진행한다.

주 강사인 이충제씨는 "예배에서 음향은 찬양과 말씀 등을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으로 음향을 배울 기회가 부족하여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음향의 기초와 더불어 다양한 활용 방법을 소개하고, 누구나

교회음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충제씨는 버클리 음대에서 작곡과 음향을 공부 하였으며, 온누리교회, 그레이스 채플 (Grace Chapel)에서 음향 담당 음향 엔지니어이다. 현재는 Sound Park NY에서 뮤지컬과 각종 공연의 음향 엔지니어를 담당하는 Associate Sound Designer이다.

Sound Park NY 홈페이지 www.soundparkny.com에서 사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 jaylee@soundparkny.com으로도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일시: 2016년 11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장소: 보스톤 온누리교회 본당 (73 Pine street Woburn, MA 01801)

강사: 이충제 음향 엔지니어, 박태중 음향 디자이너

회비: \$10 (점심 제공)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건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신용카드 채무조정
이민법

전화: (781)712-1700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역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a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농장에 등장한 스누피 미로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선경 기자 = 매사추세츠의 옥수수 농장에 찰리 브라운과 스누피가 나타났다. 덴버스의 코노스 농장(Connors Farm)은 스누피의 할로윈 특집 에피소드 탄생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를 테마로 한 거대한 크기의 미로를 제작했다.

코노스 농장 뿐만 아니다. 현재 미국 내 농장 90여곳에서 이 에피소드를 기념하기 위한 거대 미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벤트의 테마가 된 스누피 에피소드 ‘할로윈 데이’ (원제: It's the Great Pumpkin, Charlie Brown)는 1966년에 탄생하여 오랜 사랑을 받아왔다.

에피소드의 원제목 ‘이건 그레이트 펌프킨이야, 찰리 브라운’의 그레이트 펌프킨은 크리스마스의 산타클로스, 부활절의 토끼와 같은 상징적인 존재다. 찰리 브라운 및 그 일당들이 할로윈 이브에 분장을 하고 사탕을 받으러 다니는 동안 고지식한 라이너스는 호박밭을 지키며 그레이트 펌프킨이 나타나길 기다린다. 친구들이 그레이트 펌프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라이너스를 말려도 보고 골려도 보지만, 굴하지 않고 호박밭을 지키다. 하지만 끝내 그레이트 펌프킨이 나타나지 않자 라이너스는 내년을 기약하며 에피소드는 마무리된다.

‘할로윈 데이’ 특집 에피소드는 ‘크리스마스’ 특집에 이어 피너츠에서 세번째로 제작한 연말 연시 특집 에피소드로, 제작된 이후 2000년까지 매년 CBS를 통해 방영된 바 있으며 2001년부터 ABC가 이어받아 현재까지 방영되면서 미국의 할로윈 시즌의 클래식식이 되었다. 현재 ABC에서는 ‘할로윈 데이’에 연이어 ‘넌 당선되지 않았어’ (You're Not Elected, Charlie Brown) 에피소드를 방영하는데, 이는 할로윈과 선거일이 비슷한 날짜에 진행되는 것을 상기시킨다. 이 에피소드에는 TV방영을 통해 유명해진 그레이트 펌프킨 관련 라이너스의 대사가 있다: “절대 상대방과 토론하지 말아야 할 세가지가 있다. 그것은 종교, 정치, 그리고 그레이트 펌프킨이다.”

‘할로윈 데이’와 ‘넌 당선되지 않았어’는 올해 10월 28일 저녁 8시부터 ABC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생애 처음으로 할로윈 파티에 초대된 찰리 브라운과 호박밭에서 그레이트 펌프킨을 기다리는 라이너스를 더 생동감있게 만나보고 싶다면 이 에피소드 기념 이벤트를 진행 중인 농장을 방문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매사추세츠 주 내에서는 코노스 농장 이외에도 플림프톤 지역의 옥수수 미로와 호박밭, 휘트니스빌의 웨스트

엔드크리머리(West End Creamery)에서 스누피 미로를 만나볼 수 있다. 이는 더 메이즈(The MAiZE Inc)에서 디자인한 것이다.

찰리 브라운과 스누피를 만든 찰스 슈츠(Charles M. Schulz)의 딸 질 슈츠(Jill Schulz)는 지난 21일 보스턴매거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는 정말 멋진 일이다. 언제나 아버지의 유산을 살아있게 만드는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며 농장의 에피소드 기념 이벤트가 자신의 아버지의 작품에 대한 멋진 헌화라고 말했다.

질은 스누피와 찰리 브라운을 포함한 그 일당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앞으로 사랑받을 것이라 믿는다며, 이는 그 이야기속 주제들이 어떤 세대에 속한 사람이든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몇몇 팬들로부터 매년 이 특별한 에피소드를 자신의 자녀와 손주들과 함께 감상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매우 행복하다고 밝히며 “수많은 세월이 지나며 많은 에피소드들이 제작되었지만, 초반의 몇몇 에피소드들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지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n@bostonkorea.com



코노스 농장은 스누피의 할로윈 에피소드 ‘할로윈 데이’ 탄생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거대한 미로를 제작했다. (이미지 출처 connorsfarm.com)



윌리엄 체이스, '어린 고아(The Young Orphan)', 1884, 캔버스에 유화 (이미지 출처 mfa.org)

MFA 윌리엄 체이스 회고전

과소평가된 인상주의 화가의 최초의 회고전 오는 1월 16일까지 전시예정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선경 기자 = 19세기 미국 인상주의 화가 윌리엄 메리트 체이스(William Merritt Chase)의 회고전이 그의 서거 100주년을 맞아 보스턴 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는 그의 죽음 이후 최초로 열리는 회고전으로, 1886년에 있었던 첫 번째 개인전 이후 보스턴에서 열리게 되는 두번째 체이스의 개인전이기도 하다. 풍경화, 인테리어, 초상화, 자포니즘의 영향을 받은 작품 등, 다양한 주제와 화풍을 넘나드는 80여점의 체이스의 작품을 한자리에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보스턴 미술관의 시니어 큐레이터 에리카 히쉬러(Erica Hirshler)는 체이스의 다채로운 화풍을 전통과 새로움이 공존했던 19세기 건축스타일에 비교하며 “체이스 작품의 미학은 (새로움과 전통 사이의 여러가지 요소들을) 편집했던 것에 있다”며 “주제별로 전시된 체이스의 작품을 관람하면서 공간마다 다른 작가의 작품이 놓여진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화와 파스텔을 모두 마스터한 그의 화려한 기법이 전시 전체를 통해 강조된다. 반다이크, 프란스 할스, 벨라스케스, 렘브란트 등, 과거 거장들의 화법을 가능한한 모두 흡수하려고 했던 그의 노력은 스스로를 “스폰지”라고 묘사했다는 일화에서도 읽을 수 있다.

테라 파운데이션의 큐레이터 캐서린 부르귀농(Katherine Bourguignon)은 체이스를 “화가들의 화가”라고 부르며 “이 작품들중 몇몇은 기법적으로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다.

우리에게 친숙한 미국 화가 찰스 실러, 조지아 오키프, 마스턴 하틀리, 에드워드 호퍼의 미술 선생님이기도 했던 윌리엄 체이스는 미국 인상주의 화풍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그의 동시대 화가들(가령 존 시어 사전트, 제임스 맥닐 휘슬러)에 가려 과소평가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시는 오는 1월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mf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sun@bostonkorea.com

**광어,우럭
사시미에
한잔 생각하시면
오빠 스시로
오세요**

185 Harvard Ave. Allston
617 202 3808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Yarmouth

보스턴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턴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역사에 남은 단두대 매치, 2016 월드시리즈 키포인트

와후추장 vs 염소, MLB 양대 리그를 대표하는 저주의 만남
68년을 기다린 클리블랜드, 108년의 컵스, 둘 중 하나는 깨진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MLB에 이보다 더 큰 흥행카드가 있을까. 2016년 월드시리즈에서 맞붙는 아메리칸 리그의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내셔널 리그의 시카고 컵스. 두 팀은 현존하는 양대 리그를 대표하는 저주를 가진 팀이다. 68년간 우승을 놓친 클리블랜드와 108년동안 우승을 못하고 두 개의 저주중 하나는 반드시 이번 월드시리즈에서 깨지게 되어 있어 야구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MLB를 대표하는 저주를 가진 컵스와 클리블랜드

컵스와 클리블랜드는 오랫동안 우승의 한을 풀어온 만큼 재미있는 이름의 저주도 가지고 있다. 클리블랜드는 1951년 인디언 추장을 형상화 한 마스코트인 '와후 추장'의 얼굴을 바꾼 후 1954년, 1995년, 1997년 세 번의 월드시리즈에서 우승을 놓쳤다. 이에 야구팬들은 클리블랜드가 '와후 추장'을 우스꽝스럽게 바꿔 원주민들의 원한을 샀기 때문이며 '와후 추장의 저주'라고 말한다.

시카고 컵스에 내린 저주는 이보다 더 기구하다. 1945년 월드시리즈 4차전에서 애완 염소머피와 함께 야구를 관람하러 온 빌리 시아니스는 '염소가 악취를 풍긴다'는 이유로 구단주로부터 퇴장 지시를 당했다. 별안

간 쫓겨나게 된 빌리는 "컵스는 다시는 우승하지 못할 것이다"는 악담을 남겼고, 그 이후 컵스는 거짓말처럼 단 한 번도 월드시리즈를 밟지 못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염소의 저주'라고 일컫는다.

깜짝 선전 클리블랜드 vs 준비된 1위 후보 컵스

아메리칸 리그 중부리그의 클리블랜드의 선전은 뜻밖이었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시카고 화이트삭스 두 강팀이 버티는 가운데 작년 시즌 깜짝 우승을 한 캔자스시티 로열스까지 가세하여 클리블랜드는 우승과는 멀어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6월 5일 디펜딩 챔피언 로열스를 스윙하며 중부리그 1위를 빼앗더니 이후 파죽의 10연승으로 지구 1위 자리를 굳혀 지금의 자리까지 올랐다.

이런 배경에는 코리 클루버 (18승 9패, ERA 3.14, 2014년 AL 사이 영 수상)를 비롯해 10승 이상씩을 달성한 물샷 틈 없는 선발투수진과 시즌 중반 영입한 MLB 최정상 불펜 앤드류 밀러 (8월 이후 4승 3세이브 ERA 1.55)의 활약이 있었다. 클리블랜드는 올해 NBA에서 사상 첫 우승을 기쁨을 맛본 후 올해 두 번째 선물을 기다리고 있다.

시즌 초부터 우승후보로 불렸던 컵스는 1세기를 넘긴 월드시리즈의 우



68년간 우승을 놓친 클리블랜드와 108년간 우승을 못한 컵스, 두 팀중 어느 팀이 한을 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MLB.com)

승의 한을 풀기 위해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해 놓았다. 레드삭스 재임 10년 동안 팀에 두 번의 우승을 안기며 밤비노의 저주를 폰테오 엡스타인을 전 레드삭스 단장을 사장으로 영입하며 고액연봉자들이 망쳐놓은 팀을 재정비 하기 시작했다. 비록 작년 시즌 플레이오프에서는 웬 염소와 같은 이름의 남자 대니얼 머피 (당시 뉴욕 매츠)에게 난타당하며 염소의 저주를 이어나가는 듯 했다.

그러나 올시즌 컵스는 제이크 아리에타 (2015년 NL 사이 영 상, 18승 8패, ERA 3.10), 앤서니 리조 (타율 0.292, 홈런32개, 109타점), 카일 헨드릭스(투수, 16승 8패 ERA 2.13)등을 육성하고 야구 역사상 가장 빠른 공의 사나이(105마일), 쿠바 미사일 아틀 디스 채프먼을 시즌 도중 영입하며 창단 이래 역대 최강의 전력을 갖추었다

는 평이다.

레드삭스와의 인연을 가진 양 팀

이번 월드시리즈는 레드삭스의 팬이 주목할 만한 면들이 있다. 바로 2004년 밤비노의 저주를 갚 두 주인공이 올해 월드시리즈에서 다시 만났다. 당시 레드삭스의 테리 프랑코나 감독은 현재 클리블랜드의 감독이며, 앞서 말한 테오 엡스타인 현 컵스 사장은 염소의 저주를 풀기 위해 레드삭스에서 데려온 구세주다. 선수중에도 낮은 얼굴들이 있다. 엡스타인 사장은 2014년 레드삭스에서 시즌 도중 오클랜드로 건너간 존 레스터를 컵스로 불러들였는데, 레스터는 올 시즌 19승 5패 ERA 2.44로 커리어 하이를 찍었다. 클리블랜드에는 레드삭스에서 1루수를 맡았던 마이크 나폴리가 있다. 나폴리는 타율에서는 .239로 약간 부진했지만 득점지원에서 34홈런

101타점을 올려 알토란같은 활약을 보였다.

현재 2차전까지 진행된 가운데 양 팀은 1승 1패씩 나눠 가졌다. 2차전 승리팀 컵스는 두터운 선수층을 바탕으로 남은 홈 3연전에서 모두 승리를 거둬 홈에서 월드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겠다는 각오다. 반면 클리블랜드는 선발 트레버 바우어가 쉽게 무너지며 3선발 체제가 불안하다. 하지만 작년 캔자스시티가 아무도 예상 못한 깜짝 우승을 거둔 것처럼 클리블랜드가 우승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컵스가 한 세기만에 한 풀이를 할지, 아니면 모든 면에서 열세인 클리블랜드가 기적처럼 우승 트로피를 가져갈지, 그 역사의 순간을 야구팬이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될 것이다.

itshunne@bostonkorea.com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은혜한의원에서

희망을 도와드립니다.

- ① 요통, 어깨, 목, 허리 통증, 관절염
- ② 두통, 편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불면증
- ③ 비염, 천식, 알레르기, 각종 스포츠 부상
- ④ 만성 안압이상, 비만, 죽상동맥경화
- ⑤ 소화장애, 변비, 과민성 대장증후군
- ⑥ 심혈관 질환 예방, 비뇨기 장애
- ⑦ 만성 질환, 당뇨, 고혈압, 비만, 과체중
- ⑧ 임신 전, 임신 중, 임신 후 건강관리
- ⑨ 노인 재활치료, 노인성 질환 예방
- ⑩ 기타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능성 치료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압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GB Family Physical Therapy

가족 물리치료 병원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고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2015년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캠페인 모금액으로 알아보는 올해 주민투표

차터스쿨에 대한 찬반 투표가 가장 치열
마리화나에 찬성하는 자금이 반대 압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올해 선거일에는 매사추세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인 선거가 없지만 투표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주민투표에 올라온 질문들이 매사추세츠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투표일을 2주 앞둔 상황에서 10월 중순까지 각 주민투표 안전에 대한 재정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각 주민투표 안전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진영에서 광고와 캠페인 등을 진행하기 위해 모금한 자금 내역이다.

자금 여력이 많은 쪽에서는 선거 유세 못지 않게 활발한 정치 활동을 벌일 수가 있다. 또 자금이 많이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투표 안전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총 모금액을 기준으로 각 주민투표 안전의 순위를 매겨보자.

2번 질문: 차터 스쿨 - \$26.8 million

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차터 스쿨의 숫자를 늘리자는 주민투표 안전이 가장 많은 모금액을 기록했다. 그만큼 정치적인 공방이 치열하다는 의미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는 차터 스쿨의 최

대 숫자를 120개로 제한하고 있다.

차터 스쿨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2번 질문에 찬성하는 쪽은 1,750만 달러를 모금했다. 차터 스쿨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단체는 그레이트 스쿨스 매사추세츠로, 2016년 초부터 지금까지 1,500만 달러를 지출했다.

차터 스쿨의 확대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930만 달러를 모금했다. 특히 차터 스쿨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10월부터 모금액수를 크게 늘리고 있다. 10월 초에 2주 동안만 300만 달러를 모금했다.

4번 질문: 마리화나 - \$5 million

11월 주민투표에 따라 매사추세츠는 유희용 마리화나를 허용하는 5번째 주가 될 수 있다.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더라도 미성년자는 마리화나를 구입하거나 소지할 수 없다.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는 그룹은 490만 달러를 모금한 반면에, 반대하는 쪽은 15만 8천 달러의 모금에 그쳤다. 마리화나 합법화 찬반을 둘러싼 논쟁은 적어도 모금액 수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난다.

1번 질문: 슬롯머신 확장 - \$1.1 million

현재 매사추세츠는 법으로 슬롯머

신 게임장의 숫자를 1개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슬롯머신 게임장 라이선스를 1개 더 추가하지는 법안이다. 타일랜드 기반의 부동산 개발업자인 유진 매케인이 법안 발의를 주도했고, 법안 찬성 캠페인의 거의 모든 자금을 대고 있다. 이 주민투표안에 반대하는 기금은 50달러에 불과하다.

3번 질문: 동물 보호 - \$806,000

움직일 수 없는 작은 우리에 가두고 사육한 육류와 조류, 계란 등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주민투표에서 통과되면 2022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법안 통과가 당연시 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찬성하는 쪽이 56만 9천 달러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23만 7천 달러를 모금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육류의 가격이 올라 저소득층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jsi@bostonkorea.com



찬반 논란이 가장 치열한 주민투표 법안은 차터 스쿨의 확대 여부를 묻는 법안이다



매스 터피크의 기존 요금 징수소는 이번 주부터 철거된다

고속도로 징수 시스템 교체로 정세 예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교통부 산하 고속도로 관리국이 이번 주부터 매사추세츠 주의 모든 유료 고속도로의 요금 징수 시스템을 교체한다. 교통부는 전자통 징수 시스템으로의 교체를 통해 교통 혼잡과 대기 오염이 줄어들 테지만, 운전자들이 “약간의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탐 톨린 고속도로 관리국장은 “교통은 우리에게 매일 먹는 음식과 같다”며 “하루 평균 60만 대 이상의 차량이 매스 파이크를 이용한다. 공사가 끝나면, 고속도

로를 이용하기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교통부는 유료 고속도로의 요금 징수 시스템을 교체하는 첫 주에는 근무 시간을 바꾸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28일부터 현금 징수가 전면 중단되며, 저녁 6시 45분부터 기존의 이지패스 시스템이 중단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작된다.

교통부는 최종 공사 마감일을 11월 22일로 예상하고 있다.

jsi@bostonkorea.com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렁탕의 미역, 국밥, 보쌈, 육육과 함께 각종 두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r Deacon Hill
158 Cambridge St, Boston
617.877.8888
SeoulFoxBistro.com

“고객의 이익을 늘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스티븐 손
SINCE 2001
수석부사장, 브로커
부동산전문, 리얼터



주책, 콘도, 사업체, 건물, 투자

617.290.0623 | Sson@ownnewengland.com
Son2323@gmail.com

"HOT" 비즈니스 매물 정보!

RT.128 & I-95 안쪽에
모든 장비 갖춘 세탁소:
부부 운영 Net \$100K이상 \$150K(강추)



Waltham 불안의 픽업 스토어:
많은 확대 가능성!
신규 또는 확장에 적격 \$149K(필건)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안전, 캠퍼스 인근 사건사고 잇따라

BU, 지난 달 사망사고에 이어 성폭행 사건 발생
안일한 학교 대책에 학생들 불만 높아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23일 보스톤 대학(이하 BU) 기숙사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잇따른 보스톤 내 대학에서의 사건사고에 학생들의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번 학기 들어 보스톤 내 대학 캠퍼스 인근에서는 벌써 두 건의 사망사고와 한 건의 살인미수가 있었다. 잇따른 학교 주변 사건 사고에 대해 학생들은 불안감에 휩싸이며 학교의 안전 대책과 재발 방지에 조금 더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23일 오전 BU 캠퍼스 내에 있는 워렌타워 기숙사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BU는 밤 9시30분께 학생 및 임직원에게 경고문자 및 이메일을 통해 사건을 알렸다. BU경찰은 이 사건을 계속 수사 중에 있으며 피해자나 가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워렌타워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비(非)군인 기숙사로 14개층의 빌딩 37개에 약 1,800여명의 BU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신입생이다.

이번 학기에 BU 인근에서 사건사고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지난달 6일 입학식을 마친 중국 출신의 한 신입생이 한밤중 BU의 니커슨 필드 옆을 지나는 열차 선로에 뛰어들어 사망하는가 하면, 18일에는 기숙사 인근에 있는 클럽에서 총기사건이 발생해 피해자가 머리에 총을 맞은 사건도 있었다

. BU 뿐만 아니라 에머슨 컬리지 인근에서는 25일 새벽 7명의 시민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워렌타워 거주자 L씨는 “사건이 보도된 후 학생들 사이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L씨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BU경찰이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조사할 것이라 했지만 딱히 보안이 강화되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고 학생들도 평상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면서, “경찰을 신뢰하지만 좀 더 많은 보안카메라가 내부와 외부에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보스톤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익명을 요구한 한 BU의 사감은 “구체적으로 학교측으로부터 보고 받은 것도 없지만 학교 측에서 어떤 미디어와의 접촉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학생들의 심증팔구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한해 동안 자살을 비롯한 각종 사건 사고들이 학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지만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으며, 일부는 피해자의 부모가 원치 않았기 때문도 있지만 학교가 사건이 일어나면 무조건 덮으려고만 한다”며 학교의 사건 처리와 재발 방지 대책에 불만을 제기했다.

itshunne@bostonkorea.com



BU는 지난달 신입생 열차 사고에 이어 지난주 성폭행 사건까지 연이어 일어난 사건사고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염성이 강한 고양이 바이러스 범백혈구 감소증이 보스톤 인근 지역에서 유행 중이다

치명적인 고양이 바이러스, 보스톤 인근에서 유행

사람에게는 전염 안돼

존하게 되었을 경우 뇌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고양이 바이러스가 보스톤 인근지역에서 발견되었다. 보스톤의 동물구조 리그(The Animal Rescue League)는 고양이 바이러스가 매타윈의 워크 힐 스트리트 주변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확인했다.

이 질병의 이름은 범백혈구 감소증(Panleukopenia)으로, 심한 설사와 고열, 구토가 대표적인 증상이다. 이와함께 식욕저하, 침울함, 탈수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데 이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면역력을 떨어트려서 다른 세균에 쉽게 감염될 수 있다. 임신 중인 고양이의 경우 자궁 내 감염되어 사산하거나 생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2-3일만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2-14일 만에 발병한다. 보통 생후 6개월령 이하의 어린 고양이에서 잘 일어나지만 더 성장한 고양이에서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보통 감염된 고양이나 분비물에 직접 접촉함으로써 전염되며, 감염된 고양이의 거처를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전염될 수 있다. 따라서 감염된 고양이가 거주했던 곳은 깨끗이 소독을 해주어야 한다.

한 마리가 감염되면 인근의 고양이들에게까지 감염될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감염이 의심되면 동물병원에 내원해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을 통해서 발병을 막을 수 있다.

sun@bostonkorea.com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콘도 오픈 하우스
(10월30일 일요일 11시~12시30분)

Townhouse in Acton

1,830 SF (finished basement not included),
2 Beds, 4Baths, 1 Garage,
1 Office space, Loft, Open plan

ASKING: \$525,000



집을 사고 팔때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e-mail) thepeterginateam@gmail.com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美 대선 2주 앞, 클린턴 44% vs 트럼프 41% '격차 좁혀'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미국 대통령선거(현지시간 11월8일)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불과 3%포인트(p) 차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폭스뉴스가 26일 공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클린턴의 지지율은 44%, 트럼프는 41%였다. 지난주 폭스뉴스 조사에선 클린턴(45%)과 트럼프(39%)의 지지율 격차가 6%p였다.

또 이번 조사에서 '제3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한 응답자와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한 응답자는 각각 10%와 4%였다.

개리 존슨 자유당 후보와 질 스타인 녹색당 후보를 제외한 '트럼프 대(對) 클린턴' 양자 대결에선 지지율 격차가 좀 더 벌어져 클린턴 49%, 트럼프 44%였다.

뚜렷한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파(無黨派) 유권자들은 클린턴보다 트럼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당파 응답자의 41%가 트럼프를

선호한다고 한 반면, 클린턴의 손을 들어준 사람은 28%에 그쳤다.

트럼프 후보의 주요 지지층은 대학 학위가 없는 백인, 남성, 복음주의 기독교 유권자로 조사됐다.

클린턴 후보는 흑인, 미혼 여성, 30세 이하 성인 유권자, 그리고 이번 선거가 생애 첫 투표가 되는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화당 측 여론조사원 대런 쇼는 "트럼프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공화당 유권자들의 지지를 굳히는 동시에 무당파 유권자들도 아우를 수 있어야 한

다"고 분석했다.

전체 유권자 중 64%가 이번 선거에서 클린턴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내다본 반면,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6%였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유권자의 86%가 클린턴, 공화당 유권자 중 49%가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했다.

이번 조사는 22~25일 전국 등록 유권자 130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2.5%다.

lchung@news1.kr



천만 논란이 가장 치열한 주민투표 법안은 차터 스쿨의 확대 여부를 묻는 법안이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공화당 하원의원들

美 공화, 이대로 가면 '여성' 하원마저 위태 '전전공공'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마지못해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이다.

26일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지지율 부진을 보이고, 민주당의 상원 탈환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공화당의 '여성'인 하원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 탐 폴 하원의원(오克拉호마)은 큰 차이는 없더라도 민주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만일 예상대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상·하원 모두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이 장악할 경우 공화당은 중대한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협력을 할 것인지, 사사건건 맞서면서 2018년 중간선거를 대비할 것인지, 비협조적인 전략을 취해 상원을 탈환할 것인지 공화당이 직면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지지 선언

을 하지 않은 폴 라이언 하원의장의 거취문제와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후보 메릭 갈랜드의 인준 문제 등도 선거 결과에 따라 공화당이 고심해야 할 문제라고 NYT가 분석했다.

입법 활동 제약도 우려점 중 하나다. 공화당원들 중 대부분은 세법, 이민정책, 건강보험 등과 관련해 억눌린 요구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원까지 민주당이 장악하면 이러한 요구들은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에서 더 두려워 하는 것은 클린턴 당선 후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등이 이른바 민주당 내 '진보의 아이콘'들이 힘을 받는 상황이다.

이렇게 된다면 진보적 정책과 법안들이 쏟아지게 될 것이고, 공화당이 입맛에 맞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또 공화당에선 하원까지 무너지면 양당제의 기반이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yjyj@news1.kr

[시사만평]

〈셀카(Selfie)〉

서동원: 픽사, 니클로디언, 보스턴 글로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레이터



골프 레슨

최성조 프로
 마스터 US 월드 리빙 프로
 us.gtf@gmail.com

857.600.6755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창립 35주년 기념예배(주일)와 말씀집회(금, 토)에 초대합니다
 일사: 11월4일(금) 오전7:30
 5일(토) 오후7:30
 6일(주일) 오전10:30
 *금, 토 집회전에 저녁식사가 있습니다. 6:30

강사: 유건원 목사(장립목사)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Eileen Park (마일린 박)
 REALTOR®
 RE/MAX Unlimited

주백 | 콘도 | 커머셜
 섬삼짱 도와드리겠습니다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420 Harvard Street, Brookline MA

손영권 치과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크레이머가 애널리스트에게... "애플에 대한 존중없다" 힐난

(서울=뉴스1) 황윤정 기자 = 월가의 눈높이를 만족시키지 못한 애플이 26일 뉴욕증시에서 2% 이상 하락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투자자들이 애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애플이 제시한 이번 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는 760억달러~780억달러로 월가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754억달러를 상회했다. 애플을 옹호하는 전문가들은 이 가이던스에 삼성 갤럭시 노트7 판매 중단에 따른 수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애플은 이번 분기 총마진율이 38%에서 38.5% 사이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마진율 전망치 38.9%보다 부진한 것이다.

그러나 CNBC의 증시 분석가 짐 크레이머는 애플의 새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레이머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그는 주가가 90달러 초반일 때 등장해 현재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덧붙였다.

크레이머는 적어도 애플에 있어서

는 쿡 CEO의 말이 모두 맞고 나머지는 틀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일 실적 발표회에서 쿡 CEO는 애플의 지난해 회계연도 매출이 15년 만에 첫 감소세를 나타내기는 했으나 견조한 신제품 수요로 인해 곧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낙관한 바 있다.

크레이머는 애플의 지난 분기 실적이 월가 기대치에 부합했음에도 실적 발표회에 참석한 애널리스트들로 인해 애플이 마치 큰 문제에 직면한 것처럼 비쳐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적 발표회에 참석한 애널리스트들이 쿡 CEO에 대한 존중이 없는 듯해 보여 매우 놀랐다"고 밝혔다.

그는 애널리스트들이 애플에 대해

서는 비판적이면서도 IBM이나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애널리스트들이 지난 5년 동안 실적이 계속 감소한 IBM을 애플보다 더 존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크레이머는 "애플은 가장 저평가된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눈높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진단하며 "애널리스트들이 거짓된 '매수' 투자의견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yung@news1.kr



'AT&T+타임워너' 안갯속으로...샌더스 "통신공룡 반대"

(서울=뉴스1) 이정호 기자 =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막판까지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펼쳤던 버니 샌더스 미 민주당 상원의원이 26일 AT&T의 타임워너 인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 법무부에 이들 기업을 합병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서한을 보낸 것이다.

샌더스 의원은 이날 독점규제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합병은 미디어 업계에서 힘을 과도하게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수를 불허해야 미국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고 시장 경쟁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샌더스 의원은 이어 "이번 합병제안은 미국의 미디어 산업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라며 "경쟁이 저하돼 더 이상 다양한 콘텐츠들이 제작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기존보다 적은 콘텐츠를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22일 미국 통신업체 AT&T는 미디어업체 타임워너를 854억달러(약 97조4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미국 내에서는 '시장 경쟁을 저해해 공중의 이익을 훼손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일례로 이번 인수가 발표되자 미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역시 "당선되면 이번 인수 합병을 무효로 만들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조나단 아텔스타인 전 미 연방 통신위원회(FCC) 위원은 AT&T의 타임워너 인수를 두고 "수평적이 아닌 수직적 인수"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jh.lee@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레스토랑 창업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 ☑ 치킨 관련 전문업체
- ☑ 소스 공급 및 요리 기술 전수
- ☑ 영업 노하우 전수

치킨 가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 20년 경력의 파방돌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스턴에서 레스토랑 운영중이므로 인제돈 맛과 실수 가능.
 주방기술자 파방돌이 파방고생하시는 분, 더 이상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파방돌로 연락주세요.
 검증된 노하우로 누구나 쉽게 복을 수 있습니다.

치킨 메뉴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
 식당을 준비하시는 분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



모든 제품은 한국 파방돌공장에서 안정적 공급이 됩니다.
 안심하고 정사에만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치킨양념 소스	참깨 소스	과전 파우더
치킨간장소스	불고기 소스	프렌치프라이 시즈닝
치킨 파우더	순두부 시즈닝	부대찌개 소스
치킨 염지제	순두부 다대기	갈비 소스, 자육복음 소스
떡볶이 소스	샤브 육수	김치찌개 소스

전화: 857.237.4985(문자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메일: farandoleusa@gmail.com
 웹사이트: www.farandole.co.kr
 한국공장: 경기 안산 단원 성곡 638-4 102동 파방돌

파방돌 공장 전경



레스토랑 주소: 175 Massachusetts ave, Boston, MA 02115 (버클리 음대 맞은편)

보스톤 **코리아**
 +
facebook.

=



www.facebook.com/bostonkorea1
 혹은 페이스북 검색창에서 bostonkorea를
 검색하세요

매일 업데이트되는
 보스톤 소식을
 보스톤코리아
 페이스북에서
 만나 보세요



대통령 탈당·비대위·거국내각?...與 '최순실 정국' 수습책 고심

현정사상 초유의 일...해법도 사상초유로 해야 고심커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이라는 초대형 악재를 만난 새누리당이 수습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당이 이번 사태를 수습할 방법이 없다'는 비관적인 전망 속에 이번 파문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정권재창출은 커녕 당의 존립까지도 위태롭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후속조치 마련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사태가 현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점에서 그 해법도 사상 초유로 해야하지 과거의 경험과 습관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하면 안된다는데 고심이 크다.

일단 새누리당은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과 관련 야당에 특검 도입을 제안한 상태다. 날로 커져가는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고 최순실 국정 농단의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단순한 검찰 수사를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청와대를 옹호하려 할 경우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검 도입 방침과는 별개로 현재 새누리당 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과 지도부 사퇴를 통한 비대위체제 구축,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국중립 내각 구성이 이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선 당내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는 이번 사태가 대통령 본인의 문제라 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지만, 이를 방지할 경우 당도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박 대통령과의 '결별'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여겨진 30%대에서 반토막(17.5%) 났으며 새누리당 지지율도 더 불어민주당에 역전 당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기존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게 가능했지만 이번엔 속수무책인 상황"이라며 "이미 청와대가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당까지 죽을 수는 없지 않나. 청와대와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이정현 대표 체제가 종식을 고하고 내년 대선까지 비대위 체제를 구축해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비박계 정병국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 "그동안 당 지도부, 우리 새누리당이 해왔던 행태를 보면 이 사건과 관련해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한다"며 "이것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지난 25일 "나도 연설문을 준비할 때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쓴다"고 한 이정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당 대표가 그렇게 하나. 당 대표가 잘 몰라서 했다면 깨끗하게 사과하고 실수를 인정해야하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니 국민들이 새누리당을 비웃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한 정치평론가도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금 지도부는 박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출범시킨 지도부라고 볼 수 있다"며 "지금 새누리당의 위기는 2011년 당명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변경할 때보다 더 심각하다. 비대위 체제로 가야지 국민 인식과 동

떨어진 체제가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야당의 거국중립내각 구성 제안을 수용하는 방안도 있다. 이제는 박 대통령의 리더십으로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특검이 본격화 될 경우 리더십 공백 사태가 불가피한 만큼 내각의 총사퇴 이후 박 대통령의 역할은 외교·안보 문제에 한정시키고 여야의 합의로 중립적으로 명망있는 총리를 추천하고 이렇게 임명된 총리가 내각을 꾸려 내년 대선까지 관리하는 것이다.

다만 거국중립 내각 구성에 있어서는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실제 구체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민에게 이토록 큰 실망과 좌절감을 주었다면 내각이 총사퇴하는 것이 맞다"며 "그리고 내년 대선까지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한 방안을 새누리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ykjmf@news1.kr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이정현 대표의 주제로 열리고 있다



bill chun MD

전병렬 산부인과

“여성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임산부 산전후 관리 및 분만

- 임신진료
- 초음파 검사
- 출산 케어

전 연령대 여성들을 위한 포괄적 진료

- 자궁암 검사 및 예방 주사
- 부인과 대소수술
- 각종 성병 검사, 치료
- 각종 피임법 및 갱년기 장애

지금 전화하세요 **781.787.3003**
다음날 예약 진료 가능

Women's Healthcare of Woburn

444 Washington Street, Suite 100
Woburn, MA 01801
www.billchunmd.com

H MAR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WEEKLY SALE OCT. 28 - NOV. 3, 2016

KIMCHI STEW WITH PORK

Kimchi stew with pork? It's Korea's favorite dish and soon to be yours. 얼큰한 국물이 생각나는 쌀쌀한 요즘, H마트와 함께 맛있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끓여보세요!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

SPOOKY SAVINGS

THE LOW PRICES WILL SCARE YOU ON GROCERIES, CANDY & SNACKS AT HMART

할로윈데이 파티에 필요한 다양한 캔디와 과자를 H마트에서 준비하세요!



<p>California Fuyu Persimmon 캘리포니아 단감 \$10.99 box</p>	<p>Gobo 우엉 \$1.99 lb</p>	<p>Fuji Apple 후지 사과 \$1.49 lb</p>	<p>Eddo 토란 \$1.49 lb</p>	<p>수녀원 콩두부 SOONYEWON Tofu All Varieties/14 - 16oz \$0.99</p>
<p>Oriental Sweet Potato 고구마 Medium Size \$1.49 lb</p>	<p>Purple Sweet Potato Hawaii 보라색 고구마 \$1.99 lb</p>	<p>Dragonfruit 드래곤 프룻 \$3.99 lb</p>	<p>Ginger 생강 \$0.88 lb</p>	<p>Organic King Oyster Mushroom 우리가 세상이 가장 좋아하는 버섯 \$3.99 lb</p>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p>Pork Spare Ribs for BBQ 돼지고기용 돼지고기 \$3.49 lb</p>	<p>Boneless Beef Rib Eye Steak 뼈없는 통심 스테이크 \$9.99 lb</p>
<p>Chicken Drumstick 치킨 드럼스틱 \$1.49 lb</p>	<p>Ox Feet 양동 우족 \$2.49 lb</p>
<p>Sliced Beef Short Plate 냉동 삼겹살 \$7.99 lb</p>	<p>Marinated Tenderized Sliced Pork Single Belly 양념 밥집 삼겹살 \$5.99 lb</p>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p>KOKUHO Extra Fancy Medium Grain Rice (Yellow) 국부 쌀 (황두부) 16 lbs. \$9.99</p>	<p>CJ Cooked White Rice CJ 백미 밥스 7.6oz x 12oz/box \$13.99</p>
<p>CHUNGJUNGONE Brown Rice Red Pepper Paste 6.6 lbs. \$14.99</p>	<p>DONGWON NONGHUP Honey Citron Syrup Toss Dressing 두원농원 꿀향 감귤 드레싱 7.3 lbs. \$6.99</p>

HAIORUM HONEY CITRUS TEA

TASTY TEA TIME
Drink it hot or drink it cold! Fill your heart and soul with sweet fruity goodness.
해오름 유자차는 맛과 향이 좋고 비타민 C가 풍부한 음료도 좋습니다.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Head-on Black Tiger Shrimp 머리있는 블랙 타이거 새우 9-11's \$8.99 lb</p>	<p>Live Lobster 살아있는 바닷가재 \$9.99 lb</p>
<p>SUHYUP Sea Squirt Block 수협 양동 멍게 1.1 lbs./pkg. \$11.99</p>	<p>TONGTONGBAY Yellow Croaker 통통배 참조기 300-400's 3 lbs. - box \$11.99</p>
<p>SUHYUP Sea Squirt Block 수협 양동 멍게 1.1 lbs./pkg. \$11.99</p>	<p>TONGTONGBAY Baby Octopus 통통배 아기 오징어 2 lbs./pkg. \$7.99</p>

<p>SAMYANG Noodle Soup 4.2oz x 20ea/box \$13.99</p>	<p>NONGSHIM Shin Cup Noodle Soup 농심 신 컵라면 박스 2.1oz x 6ea/box \$5.99</p>	<p>SANTUKU Japanese Style Sautuiku Udon Noodles 2.75 lbs. \$3.99</p>	<p>SEKSUL Oxtail Beef Bone Stew Stock 육골 닭골 국물 3.5oz. \$3.99</p>	<p>HAORUM Dumpling All varieties/2.05 lbs. \$4.99 팩트당 20개</p>
<p>NONGHUP Aelin Ajonjol Tteu 농협 아린계 정맥떡 10oz. \$19.99</p>	<p>ESENCIA Grapeseed Oil 에센시아 포도씨유 24oz. \$5.99</p>	<p>MARUCHAN'S Numa Yaki-Soba 마루찬 누마 야키소바 16.9oz. 2\$5</p>	<p>PENGUIN Canned Boiled Mackerel/Mackerel Pike 펄린 콘도이 양식 참돔 14.1oz. 2\$5</p>	<p>SANTUKU Assorted Fish Cakes/Oden Set 산투쿠 어묵 세트 9.5oz. \$2.99</p>
<p>BINGRAE Banana Flavored Milk Drink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6.81oz x 2 ea/box \$5.99</p>	<p>NABISCO Oreo Soft Matcha Cookie 나비스코 오레오 녹차쿠키 5oz. \$4.99</p>	<p>KOTO Bamboo Steamer 고도 대나무 찜기 21oz/ea. \$7.99</p>	<p>Mickel Silver Pot 미켈 실버 냄비 22oz/ea. \$4.99</p>	<p>KOMAX Blokops Kimchi Container 코맥스 바이오플라스틱 김치용 김치통 3.2 lbs. \$5.99</p>

During the selling process, there may be changes in price. Best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PHOTO: H. KIM**
HMART BURLINGTON STORE: 43 W. Essex Street,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4020 / STORE HOURS: Sun - Thu 9am - 9pm / Fri - Sat 9am - 10pm

확산되는 탄핵 여론... 법조계 "사실이라면 탄핵소추 사유"

"대통령 의혹, 헌법 제65조 1항 해당해"
박지원 "탄핵소추 실효적 효과 없어"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현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국정 전반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증폭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제기돼 확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 25일에는 '탄핵'이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서 장시간 올랐으며, 26일에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기습시위가 벌어지고 곳곳에서 시국선언이 잇따랐다.

연설문·발언 자료 유출 등 현재 언론보도 등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헌법 제65조 1항은 '대통령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

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에서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라면 연설문 유출 등만 보더라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직무상 행위에 있어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씨에게 연설문 등 자료를 넘긴 행위가 이 규정을 위반한 행

위에 해당해 탄핵 사유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교수는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과면 결정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위헌·위법의 중대성을 요건으로 제시했다"며 "박 대통령이 과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직무상 위법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현재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법원호사회 회장도 "당연히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나 전 회장은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탄핵소추될 당시 논란이 된 법 위반 문제로도 탄핵소추가 가능하

다는 정치적 판단이 나왔다면 박 대통령은 지금 불거져 나오는 의혹으로 당연히 탄핵 소추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안을 두고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것을 중대한 법 위반이라 말할 수 있냐"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에선 국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안(案)을 상정하되, 탄핵 등 역풍 위험이 있는 주장에 대해선 여론을 살피는 분위기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야당에서 특검 요구나 탄핵소추 운운은 실효적 효과도 없고 역풍의 우려도 크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dandy@news1.kr



청와대

차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율 반토막... '대국민사과' 다음날 17.5%

60대 이상도 등돌려...민 30.5%, 새 26.5% 역전
'탄핵·하야' 42.3% 靑·내각 인적쇄신' 21.5%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최순실 게이트' 대국민사과 다음날인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10%대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CBS라디오의 의뢰로 24~26일 사흘간 전국 성인 1528명을 대상으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 주 대비 7.3%포인트(p) 하락한 21.2%를, 부정평가는 8.6% 폭등한 73.1%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대통령 지지율은 특히 대국민사과 다음날인 26일 17.5%로 추락했고, 부정평가는 7%로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27일 CBS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그동안 계속 30%가량을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했는데 그 지지율이 절반가량으로 지지층이 무너져내렸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정 지지층이라고 읽혔던 영남권과 또 대전충청 지역에서 모두 크게 하락하면서 지금은 집토끼가 사실 대구경북 외에는 아무 지역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오늘은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주간집계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기반이었던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처음으로 부정평가(54.9%)가 긍정평가(42.7%)를 앞섰고,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부정평가(61.7%)가 긍정

평가(35.4%)를 크게 앞섰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항상 절반 이상을 넘어섰던 보수층(긍정평가 42.2%, 부정평가 53.0%)에서는 긍정평가가 40%대 초반으로 내려앉으며 사상 처음으로 부정평가에 뒤졌다.

50대에서도 지지율이 29%를 기록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로 주저앉았고, 20대 3.4%, 30대 7.9%로 10%대에도 못 미쳤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하야' 여론도 급증해 42.3%로 나타났다. '청와대 및 내각의 전면적 인적 쇄신'은 21.5%, '여당 탈당'은 17.8%였으며, '대국민 사과로 충분' 의견은 10.6%에 그쳤다.

정당지지도에서는 '최순실 특검'과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 교체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이 1.3%p 반등한 30.5%로 20대 총선 이후 세 번째로 새누리당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서울, 경기·인천, 대전·충청·세종, 부산·경남·울산, 광주·전라 등 대구·경북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새누리당을 제치고 선두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야당의 '최순실 특검' 요구를 수용한 새누리당은 3.1%p 내린 26.5%로 4주째 하락하며 올해의 기존 최저

치(4월 3주차 28.1%)를 경신하고 민주당에 오차범위 내에서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의 하락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여론성향의 무당층이나 새누리당 이탈층을 흡수하며 1.4%p 오른 14.4%를 기록, 2주째 상승하며 10%대 중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강세 속에 광주·전라와 경기·인천, 50대와 20대, 중도층에서 이탈하며 0.5%p 내린 4.5%를 기록했다.

이어 기타 정당인 0.3%p 내린 3.9%, 무당층은 1.2%p 증가한 20.2%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유선(20%)·무선전화(80%) 병행 임의결기(RDD) 및 임의 스마트폰알림(RDSP)에 따라 전화면접(CATI), 스마트폰앱(SPA),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전체 10.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birakoca@news1.kr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논란에 휩싸인 최순실씨에게 연설문 원고가 사전 유출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차대통령-최순실 관계, 정권 최대의 금기였다"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검사가 끈질기게 물어온 것 중 하나가 최태민·순실 부녀에 대한 것이었다. (최씨 부녀가) 박 대통령이 안고 있는 최대 약점인 것을 곧 깨달았다."

지난 2014년 여객선 '세월호' 침몰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이른바 '7시간 행적' 논란을 보도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은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신문 사회부 편집위원(당시 서울지국장)이 27일 '최순실 스캔들'에 대한 칼럼을 써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토 위원은 이날 산케이 온라인판에 게재한 칼럼에서 과거 검찰 수사 당시 경험을 전하며 "최씨 부녀와의 교제야 말로 박 대통령이 숨기지 않으면 안 됐던 사안으로서 정권 최대급의 터부(금기)였다"고 주장했다.

가토 위원은 특히 "최순실씨를 둘러싼 스캔들은 박 대통령의 '고독'과도 깊이 이어져 있다"면서 박 대통령의 성장과정과 최씨 부녀와의 관계, 그리고 취임 후 인사 난맥상으로 이어지는 나름의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가토는 박 대통령의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내용을 인용, 박 대통령은 "어린 시절 양친이 타인에 대

한 예외와 배려에 엄격했다"고 했지만 "정치가가 되면서는 독선적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박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심복"이었던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에 암살당한 사실을 들어 "박 대통령은 아버지 죽음 이후 그 측근과 친구였던 많은 사람들과도 서먹해졌음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가토는 박 대통령이 지난 25일 최순실씨 관련 의혹에 대한 대국민사과에서 최순실씨와의 관계를 "과거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 준 인연"이라고 소개한 사실에 주목, "이는 달리 도움을 준 사람이 없었음을 의미한다"며 "박 대통령은 고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달리 많은 의심 속에 성장한 박 대통령에게 최씨 부녀는 특별한 존재였다"고 적기도 했다.

아울러 가토는 "박 대통령은 취임 초 고위 인사에서 실책(失策)을 되풀이했다"면서 "당초 박 대통령은 누구와도 상담하지 않고 이런 인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배경에 최순실씨가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가토는 한국 검찰이 전날 최순실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사실을 전하며 이번 사건이 "박 대통령 정치생명의 종언(終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kukoo@news1.kr

불붙은 '최순실 특검' 여야, 오후 첫 논의...특검방식 쟁점

상설특검이나, 별도특검이나...합의 진통 예상

(서울=뉴스1) 박승진, 김정률, 박승주 기자 = 여야 3당이 27일 '최순실 특검(특별검사)'을 위한 첫 협의에 들어간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등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한다.

이날(26일) 민주당이 특검을 제안하고 새누리당이 수용한 지 하루 만이다. '선(先) 검찰 수사·후(後) 특검' 입장인 국민의당도 일단 논의 테이블에 앉기로 했다.

다만 특검 방식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을 요구

하고 있다. 상설특검에서 특검 추천권은 국회가 갖지만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는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의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여야가 만장 일치로 한 상설, 제도 특검 적용하면 첫 사례다. 이 부분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임명권을 요구하는 야당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봐야 한다"면서 "여야가 망라돼 상설특검 추천위가 결정하는 것이다.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별도의 법안 제정을 통한 '별도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유린 국정농단 민간인 최순실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안 이름도 정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상설특검을 하자고 하면 국민은 또다시 여당이 청와대를 옹호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 있어 국회에서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이 논의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간사인 박병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거 검찰들 규모도 최소 10명은 돼야 하고 이들의 수사기밀과 보안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수사과정에 대한 브리핑도 제도화해야 한다"며 향후 특검법안에 대한 방향을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특검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 소극적이지만 일단 테이블에 앉아 '별도 특검 및 야당의 특검 임명'을 주장하기로 했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지금 특검을 하는 것이 진실규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새누리당이 먼저 하자고 나오는 것은 그야말로 국면전환용 특검이라고 보여진다. 무조건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pej86@news1.kr



27일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최순실 특검 관련 논의를 한다

與 최순실 특검 수용 결정 배경은...청와대와 선긋기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새누리당이 26일 특별검사제 도입을 전격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특검 도입을 결정했다. 이같은 초강경 대응은 일단 날로 커져가는 국민적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와(소속) 의원들은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고 또 최순실 국정농단의 관련자 처벌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서는 특검을 마다하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본 후 미흡하면 특검을 하지는게 우리 입장이었지만 상황이 전개되는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크다"고 토로했다.

그는 "(최씨가) 독일에 있는데 송환이 되고, 국민들이 검찰 수사를 받아 들어겠냐"며 "국민들이 검찰 수사를 납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특검으로 정면돌파 하자고(당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특검 결정 도입 뒤에는 여당의 청와대 선긋기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선 당장 매일 언론에서 최씨와 관련 새로운 의혹이 터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번 최씨 사건은 국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교란과 마비인 만큼 자칫 청와대를 무한정 옹호하려 할 경우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정현 대표도 전날 자신도

연설문을 준비할 때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발언한 직후 당내·외로부터 맹폭을 당한 것이 그 방증이다.

청와대와 선을 그어 당의 생존력을 높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당을 장악해 온 친박(親박근혜)계의 세력 약화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검을 도입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으로까지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의총에서 특검이 별다른 반발 없이 당론으로 추진됐다는 대목은 이미 친박계의 목소리가 크게 약화했음을 시사한다.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 요구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 특검 도입을 계속 주장해 왔다.

새누리당도 이번 사건의 수사 방식을 계속 결정하지 못할 경우 자칫 야당의 공세에 휘말려 다음 대선까지 야당의 공세에 끌려갈 수 있는 만큼 조기 대응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실제 정 원내대표도 "야당은 아직 특검 이야기만 하고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며 "(새누리당은) 당장이라도 특검을 실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jrkim@news1.kr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檢 '최순실게이트' 특별수사본부 설치... "철저수사"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다.

대검찰청은 27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60) 관련 의혹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본부장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맡는다.

수사팀 규모도 확대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 중심으로 구성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수사팀에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 등을 추가로 투입한다.

특별수사본부는 이 사건과 관련 독립해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총장에게는 수사결과만을 보고할 계획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 본부장에게 "철저하게 수사해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특별수사본부 설치에 더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특검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지 하루 만에 결정됐다. 특검이 꾸러질 때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맡아 진행한 뒤 특검팀에 수사자료와 결과를 넘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29일 시민단체로부터 최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받은 뒤 형사8부에 배당해 수사를 해왔다. 이어 지난 24일에는 형사8부를 중심으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수사팀을 꾸렸다.

전날에는 최씨와 차은택씨(47)가 설립 및 운영에 개입했다는 의

혹을 받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리는 설립허가가 하루 만에 나는 등 설립과 운영과정 전반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들이 불거진 상태다.

전경련은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르재단에 486억원, K스포츠재단에 288억원 등 총 800억여 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등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 창립총회 회의록이 거짓 작성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또 두 재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를 대비해 만들어졌다는 의혹도 있다.

K스포츠재단은 최씨가 자신의 딸이자 승마선수인 정유라씨(개명 전 정유연·20)의 승마훈련 지원을 위해 사유화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가 한국과 독일에 설립한 더블루K, 비텍(Widex) 등의 회사는 K스포츠재단의 자금을 유용한 창구라는 주장도 나왔다. 더

블루K는 K스포츠재단의 자금을 최씨 모녀가 있는 독일에 보낼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최씨 모녀가 최소 10억원 이상을 들여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의 비텍 타우누스 호텔과 주택 3채 등을 매입했는데 해당 자금을 국외로 옮기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나온다.

최씨는 청와대로부터 각종 인사자료, 연설문 등 자료를 사전에 받아본 것으로 나타나 유출자들에 대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적용도 거론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대 입시·학사비리 의혹도 수사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최씨 모녀가 원칙대로 학사관리를 하려던 지도교수, 교수 등을 협박해 각종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중간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kukoo@news1.kr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



샤부샤부 개시

무제한 BBQ 스페셜

다양하고 신선한 고기를 마음껏 즐기세요!

COURSE "A" \$25.95

불고기/차돌박기/치킨 테리야끼/치킨 불고기/불닭/돼지 갈비
대패 삼겹살/돼지 등심/돼지 불고기/곱창구이/돈까스/치킨까스
야채/파전/순두부찌개/된장찌개/계란찜/공기밥/만두 튀김

COURSE "B" \$28.95

COURSE "A" 포함

갈비/LA갈비/등심구이/흑돼지 삼겹살/매운 흑돼지 삼겹살
새우구이/쭈꾸미구이/오징어구이/새송이버섯/허밀구이
오삼불고기

LUNCH SPECIAL \$18.95

불고기/치킨불고기/차돌박이/대패 삼겹살/돼지불고기
돼지갈비/치킨 테리야끼/불닭/모듬 야채구이/순두부찌개
된장찌개/계란찜/공기밥/파전



영업 시간 일~목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0시
금, 토 : 오전 11시 30분 - 오후 11시

단체모임에 좋은 Private Room 제공 (40-50인)

학생증을 보여주세요!
학생 할인 10% OFF



특징하고 맛있는 수라 BBQ와 함께 소주 한잔 어때요?

수라 BBQ 보스톤
781.391.5606

27-29 Riverside Ave. Medford, MA 02155
(구) 청기와 식당 위치

합법 한국방송 티보플레이에서 명품 교양채널 MBN을 실시간으로 만난다
이제 MBN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티보에서 시청하세요

MBN 런칭 기념 가입할인 혜택!

- 신규가입 고객 ~~\$39.99~~ \$29.99/월
- 케이블 TV에서 티보플레이로 전환하시는 분께 드리는 혜택!
- \$29.99/월** + 1달 추가 무료 이용 + 1년간 유료영화, 성인영화 무료

*케이블 전환 고객님은 잔료요금 발생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주희앵커의 MBN 뉴스8
진심을 담아 정의를 전하는 뉴스

다들 물어봐서 거대할 거 같았는데...
SMB (02) 223-85-7077, MBN (02) 223-85-7077, TBO (02) 223-85-7077, LA (02) 223-85-7077
SMB (02) 223-85-7077, MBN (02) 223-85-7077, TBO (02) 223-85-7077, LA (02) 223-85-7077
SMB (02) 223-85-7077, MBN (02) 223-85-7077, TBO (02) 223-85-7077, LA (02) 223-85-7077
SMB (02) 223-85-7077, MBN (02) 223-85-7077, TBO (02) 223-85-7077, LA (02) 223-85-7077

상업용 가맹점 문의
617-955-9112
LA 가맹점 문의 **213-999-7090**
문의처: 02-223-857077, 02-223-857077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톱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클 멘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영우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r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종현
교정 전문의

상호, 검·경 백남기 부검영장 재청구 검토에 "이제 그만"

"왜 가족들 장례 방해하느냐...그만 놔드려야"
"檢, 최순실 차은택 신병부터 확보해야"

(서울=뉴스1) 김현, 조규희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검찰과 경찰이 경찰 살수차의 물대포에 맞아 끝내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의 시한이 전날로 만료돼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이제 그만하라. 돌아가신 분 상대로 뭐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백 농민의 부검 영장이 어제로 만료됐는데, 검찰과 경찰이 2차 영장 발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왜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는 것을 방해하느냐. 부검영장이 장례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런 반인륜적

행위를 (검경이) 거듭할 것인지 정말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제는 정말 경고한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어르신들 가족, 농민, 많은 국민들의 애도 속에서 장례를 치르게 하자"며 "쓸데 없는 부검 영장 논란을 버리시라. 왜 장례도 못 치르게 하느냐.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촉구한다. 이제 좀 편안하게 놔 드려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이 유출된 의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청와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 대통령의 입으로 확인된 순간이었다"면서 "많은 국민들은 '비선실세가 해

외에 장기체류 중이어서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의 어제 사과문은 최씨의 수정을 거치지 않아 초본'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씨가 꾸린 별도의 자문단이 온갖 국정현안을 토론을 통해 대통령에게 자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이 의혹이 사실이면 별도의 청와대를 최씨가 운영한 것"이라며 "이게 말이 되느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뒤에서 조종하고, 그 각본대로 움직였다면 대한민국이 무력화 된 것이다. 정말 충격적이고, 이 문제 반드시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어제 구체적 해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 문제를 협조하려면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라며 "소추를 할 순 없지만 조사는 해야 한다. (힐러리) 클린턴도 본인 이메일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고, 부시도 현직일 때 정보요원 이름을 실수로 발설했다가 스스

로 자진해서 정보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가는 국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를 금지하지만 진실을 밝힐 의무는 면책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검찰은) 최씨와 차

은택(CF 감독) 신병확보에 나서라고 주장한다. 최씨는 독일에 있고 차 감독은 중국에 있다. 대략 어디 있는지 아는데, 야당이 아는 것을 검찰이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면서 "최씨의 신병은 국정원이 잘 안다. 반드시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gayunlove@news1.kr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운영위, 국감 불출석 우병우 민정수석 고발 의결

(서울=뉴스1) 최중무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을 거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김도읍 새누리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운영위 여야 3당 간사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운영위의 고발이 있을 경우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앞서 우 수석은 지난 21일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이에 운영위는 여야 협의를 통해 재차 우 수석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ykjmf@news1.kr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 관련 고발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국민의당 "누리과정 정부부담 · 미르예산 삭감 · 법인세 인상"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안 발표...일자리예산 증액
법인세 인상 예산부수법안 지정엔 "벼랑끝 타협만들것"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민의당은 25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와 연계된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부담케하는 등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안을 발표했다.

또 일자리 예산을 챙기고, 호남에 지지기반을 둔 정당인만큼 쌀값폭락 등 현안 대처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입심사를 강화해 내년 초과세수 예상액 4조~5조원을 수정해 반영하고, 세원 확충을 위해 법인세율 인상과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누진과세 등 세법개정안이 반영되도록 관련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과표 200억원 이상 기업에 현행 법인세율 22%를 24%로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국민의당은 청년·노인·여성 일자리를 챙기고 단계적으로 복지를 늘려가며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한다는 국민에게 드린 약속을 이번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며 "법정시한이 12월2일인데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율 인상 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과 관련해선 "우선 (여야 3당의) 조율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지정은 11월 말에 당시 정국상황과 3당 협의상황을 감안해 국회의장이 결정할 것이라 본다"고 언급했다.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

이다. 중앙정부의 지원범위로는 누리과정 전체 예산 규모인 연간 약 4조원 중 약 2조원을 제시했다.

재정의 통일성 원칙에 반하는 특별회계 설치에는 반대했고, 누리과정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3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구성된 5자협의체를 마련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당은 주요 증액사업으로 △ 최저임금 보장 강화 △ 저소득 대상 기초연금 단가 20만원→30만원 인상 △ 장애인활동보조인 임금인상 △ 보육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 예산 3700억원 증액 및 대북 쌀지원 50만톤 추진예산 3500억원 반영 등 △지진 대책 △군 복지 증진 등을 꼽았다.

핵심 삭감사업으로는 △보훈처 나라사랑예산 증액분 40억원 등 공정한 대통령선거를 위한 홍보성·선심성

예산삭감 △권력형 비리와 연계된 사업 △기업 등 특혜성 사업 △재정 조기 집행 등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한 사업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미르재단과 관련한 문화창조 융합벨트 구축 사업 580억원 삭감, 코리아에이드 예산증액분(143억원) 전액 삭감, 미르재단, K스포츠택단, 차은택 감독이 개입해 주도해온 사업에 대한 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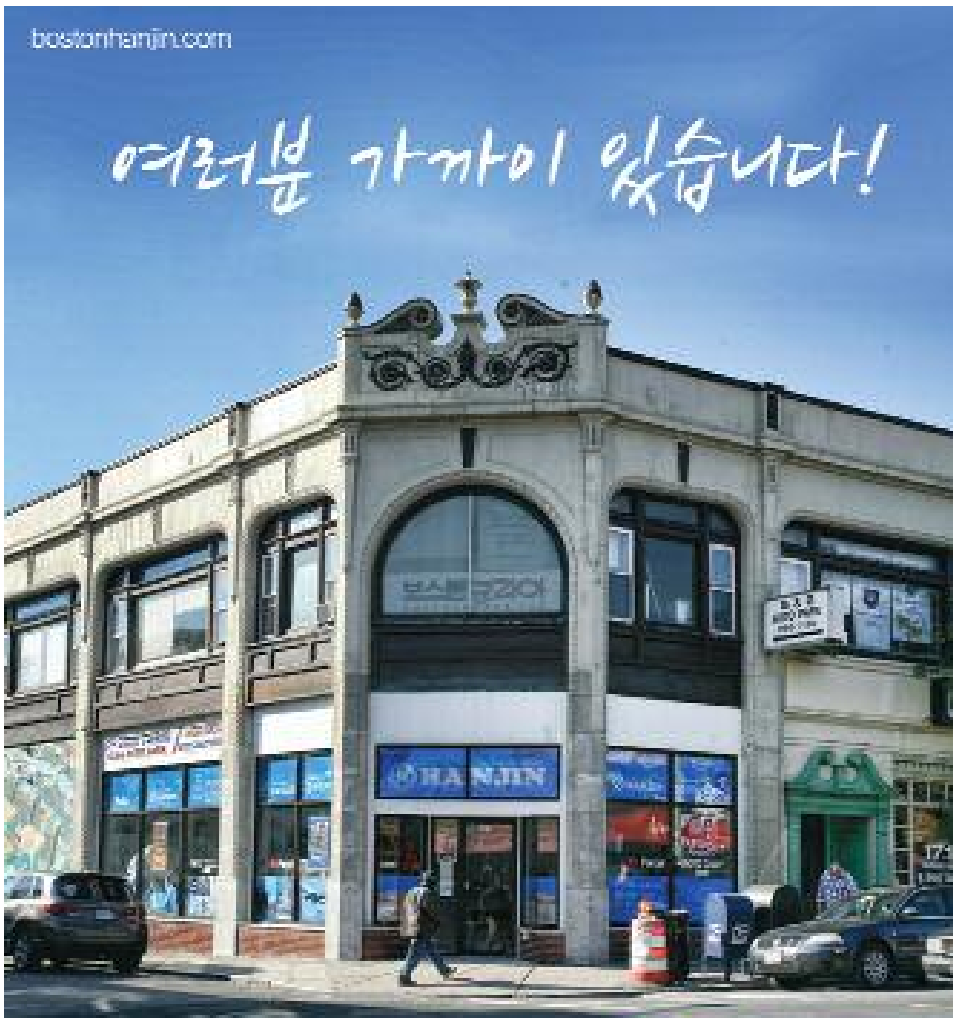
김 의장은 "미르·K스포츠택단이 사업주체인 예산은 당연히 다 삭감할 것"이라며 "확실히 들어낼 것은 들어냈고, 비목은 (두 재단) 관련한 것이지만 다른 형태의 사업성이 있는 건 상임위 심사에 맡기겠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정부 예산부터 출석수범토록 하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특수활동비도 적정규모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도 & 푸도상 튜터링 Nabis Studio

Farandole COUPON
 양념 치킨(Mild Glaze Bites) small \$12.95
 크리스피 치킨(Crispy Bites) small \$12.95
Buy One Get One Free
 유효기간: 2016년 10월 31일까지
 밀리버리(\$20이상 주문)/take out/레스토랑 방문
 * 주문할 새치킨이 없을 경우 delivery 주문시 전화로 주문해 내오실 경우에 해당, 이는 주문의 취소/반품 가능 항목이 아니며 환불이 불가합니다.
 * 다른 브랜드와 중복사용은 불가합니다.

Farandole
 MEDIAN KOREAN CUISINE
 주문을 위해서 계속해 주세요

입소문난 치킨 레스토랑 (구)inboston이 파랑들로 여러분께 가까이 갑니다.

모든 메뉴: Yelp에서 Farandole를 검색하세요
 배달 가능지역: Allston(B.U.), Cambridge(M.L.T., Harvard), Longwood, Brookline village 등

영업시간: 11:30am-11pm
 배달주문시간: 4pm-10:15pm

주문전화: **617.982.7118**
 (배달이 올때 맞은편)
175 Massachusetts ave, Boston, MA 02115

MSTA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메사추세츠주 태권도 협회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고문단장: 안 남 열 고문: 이 강 원
 고문: 구 정 희 고문: 조 형 구

회장: 정 제 형 부회장: 허 훈 부회장: 리치안 사무총장: 전 명 호 회계: 김 희 용

웹사이트: 강 창 남
 시범단장: 홍 순 우
 경기위원장: 강 민 석
 심판위원장: Michael Agosti
 홍보부장: Maureen Maher-Killelea

www.masta.us

2016년 메사추세츠 주 태권도 협회원 가입현황
 *단체회원(\$200/년): 정제형, 허훈, 리치안, 홍순우, 김희용, 전명호, 강민석
 *정회원(\$100/년): 강창남

370 Boston Tpk., Shrewsbury, MA 01545
 Phone 508-792-5534 . FAX 508-767-0113



BERKSHIRE HATHAWAY | **N.E. Prime Properties**
HomeService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주승원
617.780.7839



박성종
617.304.7001



William Glanton
978.394.2017

안녕하세요?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Opportunities를
찾으시는 손님들이나
파시기 원하시는 손님들은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s &
Commercial Division에서는
미주 각주에서 들어 오시는
큰 회사로 오시는 손님들을
직접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에만
2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저희 회사의 연결망에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백영주 올림



Allen Quinn
978.897.2781



이현주
401.935.3397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Kevin Curry
978.852.296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헐지언정 부러지지 않는 패트리어츠의 수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AFC의 전통적인 강팀인 스틸러스를 꺾으면서 시즌 6승 1패를 기록 중이다. 쿼터백 탐 브래디의 복귀 이후 기분 좋은 3연승이자, 현재 NFL 최다승 팀으로 올라섰다.

선발 쿼터백인 브래디의 복귀 이후 패트리어츠의 공격이 활기를 띠고 살아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패트리어츠의 공격만큼이나 수비도 주목을 받고 있다. 다름아닌 '헐지언정 부러지지 않는다(bend, but don't break)'는 수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팬들은 시즌 시작부터 지금까지 패트리어츠의 수비에 대해 혹평을 하기도 한다. 전체적인 수비가 엉망이고, 상대 주요 선수에게 빅 플레이를 허용하곤 하는 패트리어츠의 수비는 불안해 보일 수도 있다.

현재 패트리어츠의 수비는 2000년대 후반의 수비 모습과 흡사하다. 당시 패트리어츠는 NFL 최고의 공격력을 자랑하는 팀이었지만 수비가 늘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만큼 상대팀에게 많은 야드를 허용하였다.

2000년대 후반의 패트리어츠는 특히

상대의 패스 공격에 취약했다. 상대 쿼터백과 리시버에게 많은 야드를 허용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인터셉션이나 펌블 등의 턴오버를 통해 승기를 잡곤 했다.

현재 패트리어츠는 자질이 뛰어난 수비 선수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헐지언정 부러지지 않는다'는 말과 다소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주 스틸러스와의 경기를 보면 패트리어츠의 수비 철학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패트리어츠는 스틸러스에게 패스 공격으로만 281야드를 허용했다. 게다가 상대 쿼터백은 주전 쿼터백인 벤 로들리스버거의 부상으로 출전 기회를 얻은 백업 쿼터백 랜드리 존슨이었다. 쿼터백 기록만 놓고 본다면 브래디가 222야드를 패스할 동안 존슨이 281야드를 패스했기 때문에 존슨이 더 많은 활약을 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패트리어츠는 경기를 승리했다. 특히 스틸러스는 레드존에 4번 진출했지만 터치다운에 성공한 것은 1번에 불과하다. 스틸러스의 득점을 16점으로 묶어냈기 때문에 패트리어츠는 27점 득점만으로도 충분히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다.



패트리어츠의 코너백 말콤 벤틀러는 스틸러스를 상대로 시즌 첫 인터셉션을 기록했다

패트리어츠는 2016 시즌에 상대팀이 레드존까지 왔을 때 터치다운을 허용하는 비율이 71.5%에 이른다. 이 수치는 NFL 전체 팀 중에서 29번째로 최하 위권이다. 마찬가지로 풋볼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서드 다운 성공 비율에서, 상대팀에게 서드 다운을 허용하는 비율이 44.2%로 상당히 높다. 이 역시 리그 27위로 하위권에 랭크되

어 있다. 상대팀의 레드존 터치다운 비율과 서드 다운 성공 비율만 보더라도 패트리어츠의 수비는 상당히 부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득점을 해야 하고, 아무리 수비가 부실해 보이더라도 점수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경기에서 지지 않는다.

흥미롭게도 패트리어츠는 경기당 15.2점만을 허용하며 NFL에서 2번째로 적은 점수를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패트리어츠의 수비가 '헐지언정 부러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기록상으로 패트리어츠는 16점만 득점하면 경기를 승리로 가져갈 수 있는 훌륭한 수비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jsi@bostonkorea.com

'슈와버 2타점' 컵스, WS 2차전 5-1 승 1승1패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108년만의 우승에 도전하는 시카고 컵스가 월드시리즈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컵스는 26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벌어진 2016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7전 4전승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2차전에서 5-1로 승리했다.

전날 패배를 설욕한 컵스는 시리즈 전적 1승1패로 균형을 맞췄다. 3차전은 컵스의 홈인 리글리 필드로 이동해 29일 열린다.

1차전에서 1회에 먼저 실점했던 컵스는 이번엔 1회초에 먼저 득점했다. 1사 후 크리스 브라이언트가 안타를 치고 나갔고 앤서니 리조가 우익수 방면 2루타로 브라이언트를 불러 들였다.

컵스는 3회초 2사 1,2루의 찬스에서 카일 슈와버의 적시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5회초에는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 1사 후 리조가 10구 접전 끝에 볼넷을 골랐고 브라이언트가 3루타로 리조를 불러들였다. 이어 슈와버가 바뀐 투수 브라이언 쇼에게 적시타를 쳤고, 계속



시카고 컵스의 카일 슈와버

된 2사 만루에서 에디슨 러셀의 밀어내기 볼넷까지 나오면서 5-0까지 달아났다.

컵스는 이후 지키기에 돌입했다. 6회말 선발 아리에타가 2사 3루에서 폭투로 1점을 내줬고, 이후에도 안타를 맞아 공장 투수 교체를 결정했다. 바뀐 투수 마이크 몽고메리는 호세 라미레즈를 투수 앞 땅볼로 잡고 이닝을 넘겼다.

8회말에는 2사 1루에서 마무리 아롤디스 차프먼이 등장했다. 차프먼은 라미레즈를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이후 9회에도 마운드에 올라 볼넷 한 개만을 내준 채 경기를 끝냈다.

starburyny@news1.kr

'웨스트브룩 32점 폭발' OKC, 필라델피아 꺾고 쾌조의 출발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러셀 웨스트브룩의 활약에 힘입어 시즌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오클라호마시티는 26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웰스 파고 센터에서 열린 2016-17 미국프로농구(NBA)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의 경기에서 103-97로 승리했다.

오클라호마시티는 오프시즌 동안 케빈 듀란트(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잃고 웨스트브룩 체제로 팀을 재정비했다. 웨스트브룩은 첫 경기부터 32득점 12리바운드 9어시스트로 트리플 더블급 활약을 펼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웨스트브룩은 팀이 87-91로 끌려가던 4쿼터 마지막 3점슛을 터트렸다. 이후 동점이던 97-97 상황에서는 상대 파울로 얻은 자유투 2개를 침착하게 성공시켜 팀에 2점차 리드를 안겼다. 오클라호마시티는 이후 필라델피아의 추격을 뿌리치고 값진 승리를 챙겼다.

2014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3순위로 필라델피아에 뽑혔던 조엘 엠비드는 부상에서 돌아와 2년여 만에 데뷔전을 치렀다. 엠비드는 약 22분을 뛰면서 20득점 7리바운드 2블록으로 활약, 기대감을 높

였다.

한편 한 필라델피아 팬은 1쿼터 도중 웨스트브룩에게 야유와 욕설을 하다 퇴장당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코비 브라이언트가 은퇴한 LA 레이커스(1승)는 이날 120-114로 휴스턴 로키츠(1패)를 제압했다.

레이커스는 조던 클락슨(25득점)과 디안젤로 러셀(20득점)이 45득점을 합작했다. 신인 브랜든 잉그램은 데뷔전에서 9득점 3리바운드를 기록했다.

휴스턴의 제임스 하든은 34득점 8리바운드 17어시스트로 분전했지만 팀을 승리로 이끌지는 못했다.

yjra@news1.kr



오클라호마시티 썬더 러셀 웨스트브룩

POSPay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본손: Bo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a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본손: 20% 절약
돼지곰: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a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thony's Double-Lu Boston Korean Church

초대합니다

보스턴 한인성당

설립 40주년 기념 음악회

주제: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장소: 성 양푸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 성당
45 Ash St., Newton, MA 02466

때: 2016년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7:00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의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이 길은 살아가신 하나님의 길이고 사랑과 기쁨의 길입니다 (행 13:17)

주일예배 / 오후 2시 | 금요기도회 / 저녁 7시

송과 / 송과 / 찬양 / 경오봉부설회 / 생연부요청

Grace Bible Study / 수 7시 | LIFE 모임 / 주일 10시

담당 목사 / 우시향

7 Clarendon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보스턴 밀알 한인 장로교회

가르치고
전파하라
(막 4:25)

예배시간:
주일 1부 9:30, 2부 11:00
금요일 9:00

밀알한국학교 운영(주일 오후)

담당목사: 박일종

유세부: 임성경 목사
유신부: 임경숙 목사
유소: David Moon 전도사
유영: So Eun Kim 전도사

주소: 15 Alpha Rd,
Chelmsford MA 01824
전화: 978.537.9117
www.millal-church.org
Lexington에서 25분,
Haverhill에서 15분 거리

성경대로 열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보스턴 한인성당
St. Anthony's Double-Lu Boston



담당 목사: 권종성
Faith Theological Seminary, Ft. DR,
New York Univ. MA,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국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3시
경도인 공부	오후 4시
목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별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ynn, MA 01904 Tel: (978) 985-0285, (978) 944-2404
www.lovestruth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공교동부: 오후 2시 | 대학부요청: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당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8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9: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9월-5월)
우스터한인연합교회: 월 9:30-11:30

담당목사: 김현터
817.730.4178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906.796.4488
http://wusterkcc.org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턴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보스턴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s,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8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간판 및 사인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의 나사렛 때로 인해 마땅한 삶을 영위하며 무너져나갑니다.
그 사랑으로 무너져 새로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열린 교회를 영위합니다.
같은, 같은, 같은, 사랑, 사랑, 사랑, 무너져나갈 때를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준비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말학교, 송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 오전 7:30
영년교회 주일오후 12:30
속회교회 수-주일 속회일
영년교회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령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6:50, 목 오후 9:30



비전교회
The pastor: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esttown, MA 02472 Tel: 617.744.8587
www.growwithus.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it UP SOLUTION

내외는 뉴저지주 법세 관련 카드결제 관련회사로서 미 영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2it 2000년도 설립, 가치제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최적의 영미대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내외 대표이사 겸 대표 **이선호**
781.266.7245





HAPPY

해피돌상

고급적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풍성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고객을 더하는 최첨단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류와 천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크라우저 앤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가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제안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뜰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렉싱턴 소재 한인식당 웨이터/웨이추레스 구합니다. T. 781-860-0171 (Kay)

뉴튼, 입주나 출퇴근 하면서 집안 살림 하실 분. 맞벌이 부부와 중학생, 대학생, 개한마리 T. 617-899-4959

청소하실 분 모집합니다.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 T. 781-264-8037

Care Cleaners에서 일할 분 구함

Chelmsford Store:
Store Worker(8시간에서 12시간)
프레서, 드라이버(12pm - 6pm)

Western Store:
카운터(Full time)

연락처: 603-401-0113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보스톤에 있는 미용실 매매합니다. 좋은 장소, 가격 협상 가능. T. 617-818-5596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뉴햄프셔 네슈아 한식/일식 식당 매매. 좋은 위치, 9년째 성업 중. T. 603-882-8644 (오후 4시 이후)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4989 부동산 매대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없는데 없습니다!

BOKO MART

BOKOMART.COM

ecosolar 친환경 세라믹 코팅

에코솔라 손주물 4종세트

전통 찜통, 찜통, 찜통, 찜통

219

NEW 냉생장은 쿠폰

생선, 고기 굽는 냄새가 역겨운 사람들을 위한 조리기...
집안에 음식냄새가 잔잔히 배어있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리기...

HEALTH COOKER

전골 코팬 \$90 → \$75

시각 그릴코팬

50% 할인

보스톤코리아가 운영하는 믿음 주는 홈쇼핑

BOKO MART

주문 전화 617-955-9112
www.BoKoMart.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메이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이동보호	617-448-2000
야동학대	800-792-5200
알고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하	617-351-4500
펠러버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선교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립대한사립학교연합회	978-407-7554
국립대한사립학교연합회(NE)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주세체포대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미인문학	339-298-7187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야동학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턴 신약회	978-569-3256
보스턴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광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리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한인교회	603-437-5134
라이코교회	603-264-6799
라이코교회	978-387-1115
로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동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250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양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턴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턴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사랑교회	617-285-8870
보스턴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턴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턴 새생명교회	617-947-6765
보스턴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턴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턴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턴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턴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턴 소망교회	617-686-5526
보스턴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턴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턴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턴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턴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턴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턴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턴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턴침례교회	857-636-9985
보스턴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턴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턴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세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617-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타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타장로교회	781-354-1843
워싱턴프린더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53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턴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김판	
최이스간판	617-470-1083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장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건축	
클로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딩 청문	617-999-9616
이놀드 건축	617-833-1360
파인원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

공인 회계사	
김영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Hana Rehab Clinic	508-584-5860
정진수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틱화원	617-666-3116
대교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퓨어유)	617-777-2929
에이저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에어컨/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턴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타당구장	617-782-0969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래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975-3303
참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알굴방	617-437-0378
송현미미용실	508-734-0446
순옥뷰티부동산	508-737-8636
신현칠미미용실	617-947-6293
에이뷰티부동산(채혜경)	617-868-2253
오성희미용실	617-275-3109
이경혜미용실	800-867-9000
이정선	617-535-7851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은부동산(EXT.125)	603-770-3491
정은숙부동산	617-236-8600
조현경부동산	508-249-5838
프루덴셜(이효숙)부동산	203-255-2800
프루덴셜(김종미)부동산	603-845-2138

돌상 대여/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변호사	
김경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9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9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지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셀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생선가게	
매더팬피시마켓	617-298-2260
매일찬피시마켓	781-862-7984
브라운피시	617-282-2980
브룩린피시마켓	508-580-1016
스타피시마켓	617-524-8711
김스피시마켓	617-282-6142
파이시시시마켓	617-522-2028
K씨푸드	781-961-1114

식당	
가든하우스	978-691-5448
가주순두부(울스톤)	617-208-8540
가주순두부(케임브리지)	617-864-6868
고향식당	413-586-2682
교토	401-232-3838
KIKU(한&일식)	603-882-8644
가유가	617-566-8888
뉴장수갈비	781-272-3787
다빈	781-860-0171
다오라시	508-587-3920
다이나마이트	603-889-0055
다케무라일식	617-492-6700
리틀부산	978-897-5107
마소바 (Ma Soba)	617-973-6680
만나시	781-648-8878
명동일번지	617-206-3229
미가	860-895-8739
미나도	508-647-0495
미나도 스시	617-731-5200
미소노	617-325-9919
Mr. 스시	617-731-1122
Mr. 스시 (Arlington)	781-643-4175
본촌	617-254-8888
본촌 하버드스퀘어	617-868-0982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덕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추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턴컨테드카어로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주 치과	860-623-2601
키치소아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완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어닉스	617-871-1482
켄지소아치과	617-471-2184
손영권치과	978-459-0594

'아름다운 체형'을 위한 지방 흡입술, 안전하게 받으려면?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케이뷰라인 성형외과' ... "지방흡입술은 지방량 감소 뿐 아니라 외형적인 바디 라인 개선도 동반돼야"

사람의 체형을 결정짓는 요소는 골격과 내장 비만과 같은 내부적인 요소와 더불어 피하 지방이 한 사람의 체형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골격은 절대 바꿀 수 없는 요소이고, 내장 비만의 경우 비만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미용 성형에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피하지방으로 인한 아름답지 않은 라인의 개선이다.

따라서 피하지방층의 지방을 제거함으로써 인체의 외형적 라인을 개선하는 것이 지방흡입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흡입술은 불필요한 지방만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직손상이 최소화되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 최소절개로 진행해 외부로 노출되는 흉터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각 개인의 상태와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흡입술을 진행시 환자의 체형, 나이, 피부, 지방, 복부근막 등의 상태를 꼼꼼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방흡입술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한 최근 트렌드는 투메스نت 용액을 사용한 Wet Technique, 그리고 지방층만 흡입에 최선을 다하고 지방층 위에 있는 피부층, 지방층 아래에 있는 근육 층에는 상처를 주지 않기, 그리고 흡입하는 지방의 양보다 전체적인 라인에 더 초점을 맞추어 흡입술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날씬한 라인을 얻었다면, 더 이상 과도한 흡입으로 인해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해지거나, 조직에 손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마무리 하는 것이 좋다.

◎ 투메스نت 용액, 통증 둔감 & 출혈



항 감소 & 수술 용이 효과 있어

먼저 Wet Technique에 대해서 말하자면 지방층내의 지방을 아무런 전처치없이 기계적으로 흡입하게 되면, 상당량의 출혈을 일으키게 되며,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야기하게 된다. 그래서 투메스نت(Tumescent) 용액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투메스نت(Tumescent)는 '팽윤 시킨다', '팽창 시킨다' 는 의미로 지방층 내에 국소마취제와 혈관수축제, 그리고 기타 약물들을 적정농도로 혼합시킨 용액을 주입하여 지방층을 흡입 수술하기에 적당한 상태로 변화를 주게 한다.

이러한 용액이 주입되어서 지방층은 수분을 많이 머금게 되고, 수술 받는 환자가 통증에 둔감하게 되며, 혈관이 수축되어 수술 진행시 출혈량이 감소하게 되어, 지방 흡입 수술을 진행하기 용이해진다.

이러한 투메스نت(Tumescent)용액

을 주입하는 과도도 통증이 유발되므로, 투메스نت(tumescent)용액 주입 전에 수면 마취를 통해 환자를 마취 유도하고 나서, 이를 시행하게 된다.

투메스نت(Tumescent) 용액이 주입되고 나면, 위에서 언급한 약물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잠시 시간이 필요하므로, 어느 정도 기다려야 한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약물의 효과가 나타나면, 투메스نت(Tumescent) 용액으로 인해 국소마취제를 사용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지방 흡입 수술하기에 용이해지고, 원활하게 수술을 진행하게 된다.

◎ 과도한 혈관 손상을 막기 위해 지방층에서만 흡입 기구가 지나다니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완전한 통증 차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면 마취는 전 과정에 걸쳐서 계속 시행하게 된다. 즉, 수면 마취와 투메스نت(Tumescent) 용액을 통한 부분 마취가

같이 진행되는 것이다.

지방 흡입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피부에 상처를 주지 않고, 과도한 혈관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층 위 아래에 있는, 피부층과 근육층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피부층과 근육층 가운데에 있는 지방층에서만 흡입 기구가 지나 다니도록 하는 것이다.

글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만, 인체가 여러 면에서 많은 굴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술 과정에서 항상 지방층으로만 지나다니는 것은 마냥 쉽지만은 않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층으로만 다니면서, 피부에 손상을 주지 않고, 근육층의 근막과 혈관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지방 흡입 수술의 핵심이다.

◎ 지방흡입술은 외형적 바디 라인을 개선시키는 것도 중요 지방 흡입의 최종 목적은 지방량을

감소시키는 데에만 있지 않고, 체형의 외형적 바디 라인을 개선시키는 것에 있으므로, 라인이 개선되었다면 더 이상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피하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있던 분들에서 지방흡입을 충분히 하는 경우, 흡입하고 난 이후 피부가 심하게 이완되고 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 늘어진 피부를 잘라서 제거해 줘야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복부 부분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자주 생기는데, 복부 지방 흡입 이후 늘어진 복부의 피부를 절개하여 복부의 날씬한 라인을 완성시키는 수술을 복부 성형술이라고 한다.

이처럼 지방 흡입 수술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최종적인 목표가 외형적 라인을 개선시키는 것인 만큼, 안전하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미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BOSTON GONSTEAD CHIROPRACTIC

“카이로프랙틱이란?” : 우리 몸은 남녀노소 모두 33쌍의 척추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뇌로부터 이 신경을 통해 신호를 통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충격, 과로, 교통사고나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척추가 어긋나게 되면서 척추신경 압박 및 염증으로 뇌로부터의 신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우리 몸에 통증과 같은 이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척추의 어긋난 곳을 정확하게 찾아 가장 안전하게 바로잡는 것이 바로 카이로프랙틱입니다.



원장 : Dr. 유정호, D.C.
(Dr. Jeongho Yoo, D.C.)

- Graduated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Seminar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Methodology Institute
- Certified International Board of Extremity Chiropractors
- 한양대학교 졸업 및 ROTC 47기
- Active license in MA(#3524)

진료과목

- 척추계통 : 목 / 등 / 허리 / 골반 통풍, 디스크 질환
- 사지계통 : 어깨, 무릎, 손목, 발목, 턱관절 통증
- 신경/순환 계통 : 손발 저림, 좌골신경통, 두통, 알러지, 소화불량
- 교통/재정/운동 사고: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후유증 해소
- 어린이/학생/성인 자세 관련 통풍 및 척추측만 교정

개인기법 스페셜

- 카이로프랙틱 상담
- 당일 척추 정렬 (#200reg, \$250)
- 7월18일 - 19일(토/일)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요보험: 삼성생명PPO, 현대캐피탈, 한국/유화평/이명자/교동새고 보험 등 다수

진료시간
월-금(M-F) : 9am-5pm
토(Sat) : 10am-12pm
일(Sun) : Closed





'미씽' 공효진·엄지원, 극장가 여풍 노린 '미美시스터즈'

(서울=뉴스1스타) 김나희 기자 = 배우 공효진과 엄지원이 남자 배우들의 브로맨스가 우세했던 극장가에 여풍을 불어 넣을 예정이다. 이들의 스산하면서도 미스터리한 이야기가 과연 울가를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미씽'은 어느 날 아이와 함께 감쪽같이 사라진 보모 한매(공효진 분), 이름도 나이도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그의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면서 시작되는 워킹맘 지선(엄지원 분)의 5일간 추적을 그린 감성 미스터리다. 최근 브라운관에서 맹활약 중인 공효진과 믿고 보는 연기파 배우 엄지원의 만남만으로 화제를 모은 작품이기도 하다.

특히 '미씽'은 최근 남자 배우들이 우세한 극장가에 새로운 여풍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작품이다. 일명 '미씽'의 '미'에 '아름다울 미'의 '미'를 합해 '미미시스터즈'라고 불렀다는 두 사람. 이연희 감독은 물론 주연 배우인 엄지원과 공효진 또한 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먼저 공효진은 어느 날 아이와 함께 감쪽같이 사라진 보모 한매 역을 맡아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서늘한 눈빛과 비밀을 감춘 듯한 모호한 분위기의 캐릭터로 변신한다. 최근 SBS '질투의 화신'에서 사랑스러운 표나리 역을 맡아 열연 중인 그는 이번 영화에서 외모부터 내면까지 데뷔 이래 가장 과격적인 변신을 예고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는 작품 출연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고민이 많았지만 시나리오를 보고 남는 여운이 컸다"고 설명한 뒤 "한매는 아이를 정말 사랑하지만 모든 게 거짓인 인물이다. 우선 국적은 중국인이다. 한국에 온 지 6년 정도 됐다. 한국말이 완벽하진 않아서 중국어로 연기를 했다. 말 못할 사정이 많은 여자다"라고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영화 '더 폰'에 이어 '미씽'까지 연이어 스릴러 장르에 도전한 '스릴러퀸' 엄지원도 보모와 함께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린 딸을 찾아 나선 지선 역으로 분해 열연을 펼쳤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한매의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지선에 몰입한 엄지원은 극한의 감정 연기를 선보이며 더욱 깊어진 내공을 보여준다.

이날 제작발표회의 캐릭터 영상을 보다가도 눈

물을 보인 엄지원은 "지선이라는 사람이 가진 고독함에 중점을 두고 연기를 했다"고 말한 뒤 "시나리오를 통해 가슴으로 이해하긴 했지만제가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가슴속에 모성애에 대한 의구심을 두고 연기를 했다"고 밝혀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옆에 있던 공효진이 "지원 언니의 연기를 보며 마음이 찢어졌다"라고 극찬했을 정도.

특히 '미씽'은 최근 남자 배우들이 우세한 극장가에 새로운 여풍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작품이다. 일명 '미씽'의 '미'에 '아름다울 미'의 '미'를 합해 '미미시스터즈'라고 불렀다는 두 사람. 이연희 감독은 물론 주연 배우인 엄지원과 공효진 또한 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여기에 감성 멜로 'ing'와 '어깨너머의 연인'으로 인물의 심리를 투영한 정교함과 감각적인 연출력을 인정받은 이연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두 여자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담아내며 기존 미스터리 영화와는 차별화된 공감대와 몰입감을 선사할 전망이다. 이에 이 세 명의 여성들이 만들어낸 '여여(女女) 케미'에도 많은 이목이 집중된 상황.

이에 대해 엄지원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도 많이 나눴다. 이 영화가 잘 되면 앞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은 여자 영화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 '정말 잘 만들어보자'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미씽'이 정말 간절히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으며 공효진은 "제가 남배우만이 아니라 여배우와의 케미도 대단하는 걸 보여드리겠다"고 자신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촬영장에서 '미미시스터즈'라고 불린다. '미씽'의 '미'에 '아름다울 미'의 '미(美)'가 합해진 의미다"라고 밝히며 남다른 '여여 케미'를 예고한 두 사람. 이연희 감독 또한 "다들 모성 영화인 줄 알지만 여성 영화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자신만큼 과연 두 여성이 펼칠 미스터리한 이야기가 가을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극장가에 여풍을 불어일으킬 작품으로 우뚝 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미씽'은 내달 30일 전국 극장가에서 개봉된다.

nahee126@news1.kr

'그레이트 월', 매트 데이먼X장이머우의 만남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 매트 데이먼과 중국이 낳은 세계적인 감독 장이머우의 만남으로 전 세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그레이트 월'이 2017년 1월 개봉을 앞두고 1차 예고편을 공개했다.

'그레이트 월'은 인류 역사 최대의 불가사의로 꼽히는 중국의 만리장성에 숨겨진 비밀을 쫓는 판타지 액션 블록버스터로, 장이머우 감독의 할리우드 진출작이자 매트 데이먼의 출연만으로도 뜨거운 관심과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장이머우 감독은 '연인', '영웅' 등의 흥행은 물론 세계 각종 영화제에서의 화려한 수상 경력으로 중국은 물론 전 세계적인 거장으로 꼽히는 감독. '본' 시리즈를 통해 믿고 보는 액션배우로 거듭난 매트 데이먼과 장이머우 감독의 만남은 물론, 여기에 '쥬라기월드', '인터스텔라' 등 세계적인 흥행작을 만든 할리우드 히트메이커 '레전더리 엔터테인먼트'가 제작을 맡아 영화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공개된 1차 예고편은 장이머우 감독 특유의 화려하고도 다채로운 색감으로 빛어낸 강렬한 영상과 압도적 스케일을 담고 있다. 8851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만리장성의 외관과 미스터리한 '무엇'이 장벽을 뚫치는 모습은 거대한 비밀을 기대케 한다. 군사들의 대규모 격전은 웅장한 음악과 빠른 속도감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또한 '난 전쟁터에서 태어나 평생 탐욕과 신을 위해 싸웠다. 하지만 이 전쟁만은 신념을 위해 싸울 거야'라는 비장한 내레이션과 더불어 등장하는 매트 데이먼의 모습은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1차 예고편 공개와 함께 팽팽하게 전해지는 긴장감과 압도적 스케일로 보는 이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린 '그레이트 월'은 내년 설 연휴 극장가를 찾아올 예정이다.

한편 '그레이트 월'은 오는 2017년 1월, IMAX 3D로도 개봉할 예정이다.

aluem_chang@news1.kr



JTBC '뉴스룸' 시청자 "드라마·예능보다 흥미롭다"

(서울=뉴스1스타) 홍용석 기자 =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이 연일 단독 보도로 시청자들의 집중 관심을 얻고 있다. 시청률 또한 수직 상승하며 이를 증명했다.

26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에 담겨 있는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등 문건의 작성자가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호성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보도했다.

또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는 현직 청와대

선임행정관인 김한수 씨의 명의였다고 확인했다.

한편 JTBC '뉴스룸'은 실시간 검색어 상위 10위에 계속해서 랭크될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시청자들은 보도에 대한 깊은 신뢰감을 표하며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한 시청자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요즘 뉴스가 웬만한 드라마, 예능보다 흥미롭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6년 10월 17일 ~ 2016년 10월 23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월계수양복점신사들)	27.3%
2	KBS1	일일연속극(별난가족)	24.0%
3	KBS2	월화드라마(구르미그린달빛)	23.1%
4	MBC	창사특별기획(옥중화)	21.1%
5	KBS2	일일드라마(여자의비밀)	18.3%
6	KBS1	KBS9시뉴스	16.4%
7	MBC	일밤1부(미스터리음악쇼복면가왕)	13.9%
8	KBS2	해피선데이	13.6%
9	MBC	무한도전	12.4%
10	SBS	아침연속극(사랑이오네요)	12.3%

Tbo Play 주간시청률

1	MBC	창사특별기획(옥중화)
2	SBS	TV소설(저 하늘의 태양이)
3	KBS2	주말연속극(월계수양복점신사들)
4	SBS	아침연속극(사랑이오네요)
5	MBC	주말드라마(불어라미풍아)
6	SBS	일일드라마(당신은선물)
7	MBC	MBC아침드라마(좋은사람)
8	KBS2	일일드라마(여자의비밀)
9	MBC	일일연속극(다시시작해)
10	KBS1	일일연속극(별난가족)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너무너무너무	아이오아이
02	우주를 줄게	볼빨간사춘기
03	어떻게 지내	Crush
04	내가 저지른 사랑	임창정
05	내 옆에 그대인 걸	다비치
06	숨	박효신
07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한동근
08	그대라는 사치	한동근
09	돌아오지마 (Feat. 용준형 Of 비스트)	헤이즈
10	러시안 룰렛 (Russian Roulette)	레드벨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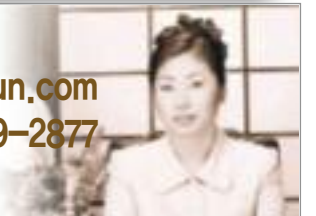
숫자 퍼즐 (Sudoku)

			5	3				6
1	6					4		
					2	9	8	
				8		6	4	7
	5						1	
4	8	1		6				
	3	4	2					
		2					3	1
6				9	3			

10월 30일 - 11월 5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제대로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운수: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알아도 받아들일 능력이 없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금전: 가벼우면 사람도 재물도 잃게 됩니다. 진중하게 행동해야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애정: 그동안 애써 자제해오던 자신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숨겨오던 감정도 들리기 쉽습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 3일 길일. 30, 5일 주의.

소띠 |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을

●운수:자각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있었던 병이 발견될 수 있으니 건강 진단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장기이상이나 혈압 증세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금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집니다. 항상 자신이 처한 위치와 분수를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애정: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30, 2일 길일. 31, 5일 주의.

범띠 | 기쁘고 고마운 소식을

●운수:기쁘고 고마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굳은 마음으로 한 길을 가면 결국은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금전: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움을 청해오는 일이 생깁니다. 흔쾌히 도와주면 자신에게도 좋은 결과가 돌아옵니다. ●애정:밖에서 인정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 덕은 배우자의 내조 때문이니 아내에게 잘하도록 하세요.
86, 74, 62, 50, 38년생은 31, 4일 길일. 30, 1일 주의.

토끼띠 | 서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운수:작은 일부터 풀려나가면서 점차적으로 모든 것이 좋아지게 됩니다. 여러 면으로 기쁨이 따를 것입니다. ●금전:새로운 투자 조건이 생기거나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이 연결될 것입니다. 금전적으로 소득이 있겠습니다. ●애정:뚜렷한 것이 보이지 않았던 상태에서 벗어나고 전환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서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 4일 길일. 30, 2일 주의.

용띠 | 얇던 이가 빠진 것 같이

●운수: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일이 해결될 것입니다. 얇던 이가 빠진 것 같이 시원해질 것입니다. ●금전:기쁨과 행운이 따르고 활기를 찾게 됩니다. 그동안 진 빚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애정:용기를 내서 솔직한 의사표현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 4일 길일. 31, 3일 주의.

뱀띠 |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아야

●운수:묵직한 일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발전하겠습니다. 잘 된다고 방심하지 말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금전: 소망했던 일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금전운이 좋은 편이니 꼭 필요한 돈이 생깁니다. ●애정: 기다리던 때가 왔습니다. 상대가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니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제는 털어놓으세요.
89, 77, 65, 53, 41, 29년생은 30, 3일 길일. 1, 4일 주의.

말띠 | 티끌 모아 태산이니

●운수:별다른 욕심을 내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금전: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적은 돈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지출에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애정: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권태기로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색다른 변화나 깜짝 이벤트로 상대에게 기쁨을 주세요.
90, 78, 66, 54, 42, 30년생은 31, 4일 길일. 2, 5일 주의.

양띠 |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운수: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눈에 보이게 나타날 것입니다. ●금전:현명하고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우물거리는 태도는 불신과 손해를 부를 뿐입니다. ●애정:전혀 약의가 없고 무심코 한 거짓말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말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 5일 길일. 31, 3일 주의.

원숭이띠 |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운수:실력을 인정받거나 역시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획기적인 멋진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금전: 이득을 보려면 바쁘게 다녀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여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애정:때로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표현으로 애정을 전달해 보세요.
92, 80, 68, 56, 44, 32년생은 30, 2일 길일. 1, 4일 주의.

닭띠 | 철저한 검토 분석이 필요한

●운수:모든 일에 대한 철저한 검토 분석이 필요합니다. 매사 주도면밀하게 처리하도록 하세요. ●금전:돈주머니에 돈이 고이지 못하고 들쭉날쭉한 상태입니다.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많은 돈의 움직임 늘어납니다. ●애정:안듯 남이 보면 부족하고 밀지는 것 같은 사랑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사랑은 그 어느 자로도 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31, 3일 길일. 2, 5일 주의.

개띠 | 옛사랑에 대한 추억은 접고

●운수:열심히 일한 것에 비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짜증이 나겠지만 초조해하지는 마세요.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금전: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청해보세요. 의외로 잘 해결될 것입니다. ●애정:웬지 모르게 안정이 안 되고 마음이 아수선하군요. . 옛사랑에 대한 추억은 접고 새로운 인연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30, 4일 길일. 3, 5일 주의.

돼지띠 | 시간을 두고 풀어야

●운수:마음을 밝게 가지세요. 자꾸 짜증을 내면 그 사람 주변의 공기마저 물들어서 자신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불안하고 짜증스러워집니다. ●금전:모든 문제는 시간을 두고 풀어야 합니다. 급히 서둘다가 지금보다 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애정:드는 정은 몰라도 나는 정은 안다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과 헤어짐이 있으니 섭섭한 마음이 들겠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 3일 길일. 1, 4일 주의.

블랙핑크, '불장난' 이어 'STAY'...4인 4색 매력

(서울=뉴스1스타) 김나희 기자 = 걸그룹 블랙핑크가 두 번째 싱글의 두 번째 곡명을 공개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27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블랙핑크의 두 번째 싱글 '스퀘어 투(SQUARE TWO)'의 두 번째 곡인 '스테이(STAY)'를 포함한 멤버별 티저 포스터를 게재했다.

공개된 포스터 속 제니는 핑크색 립스틱으로 러블리한 비주얼을 과시하는가 하면 지수는 투톤 헤어스타일 변신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미모를 자랑했다. 리사는 라이더 재킷과 망사 스타킹으로 카리스마를 발산, 마지막으로 로제는 빨간색 의자에 앉아 정면을 응시한 채 강렬한 눈빛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등 4인 4색 매력이 돋보인다.

앞서 블랙핑크는 지난 25일 첫 번째 타이틀곡 '불장난'을 공개하며 색다른 장르의 음악을 예고해 팬들의 기대감을 고조시킨 바 있다. 이어 예고된 '스테이' 역시 블랙핑크가 이전에 한번도 선보인 적 없는 스타일인 만큼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nahee126@news1.kr



김국진♥강수지, 경제관념도 천생연분 "돈 욕심 없는 부류"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김국진과 강수지가 똑같은 경제관념을 지녔다는 사실로 놀라움을 자아냈다.

박수홍과 김수용은 26일 밤 11시 10분 방송된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의 '불타는 라스' 특집 2탄에서 김국진에 대해 "내 돈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이라 설명했다.

이날 박수홍은 "예전에 생면부지의 후배가 찾아와서 등록금을 빌려달라

고 하니깐 그냥 내주시더라"며 "아무리 딱해도 생면부지의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러자 강수지는 "김국진씨나 저나 욕심이 없는 부류"라며 "둘은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류다. 김국진씨는 같은 가방을 7~8년째 들고 다닌다. 불쌍한 사람에게 돈을 줬다고 해도 뭐라고 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

aluem_chang@news1.kr

'썰전' 이재명 "최순실 게이트는 막장 드라마...하야해야 한다"

(서울=뉴스1스타) 강희정 기자 = 이재명 시장이 '썰전'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27일 밤 11시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단 의혹과 최순실 게이트 관련 분석 일부가 전파를 탔다.

이재명은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

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걸 너무 저급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막장 드라마. 최순실 감독 박근혜 주연의 새누리당이 조연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권위를 이미 상실했다. 국민을 믿고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 현재 재를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정이나 무능에 대해서는 국민이 인내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은 국민들에게도 수치감을 준다. 수습이 안 된다. 하야하는 것 아니면 탄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ddgreen35@news1.kr



St. Mary's Internal Medicine
한 성 식 내과

이제는 **보스톤**에서도 **한인 내과 전문의**에게 **맞춤형 진료**를 받으세요

Office Hour
 월-금요일, 8:30-5

한 성 식 내과 전문의
 Sungsik Hahn, M.D.

6 Essex Center Drive Suite 304
 Peabody, MA 01960
TEL : 978.854.6376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량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adisaction 10 min / Newton 20 min
 E-MAIL: eunautobody@yahoo.com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EA & NY) • BOARR • GDT • LMS AP
 MA REALTOR® • E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박사후세초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용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뜻했다"... '혼술'에 녹여낸 '청춘 미생'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미생'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혼술남녀'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담아내며 공감과 위로를 동시에 전했다.

tvN 월화드라마 '혼술남녀' 속 이야기는 평범하면서 일상적이었다. 취업 전선이 아닌 노량진 학원가에 뛰어든 공시생과 학원 강사들의 이야기는 평범하기 때문에 오히려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박하선은 88만 원 세대의 씁쓸함을 노량진 학원 강사라는 직업 안에 녹여냈다.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학원 강사를 하다가 노량진까지 입성한 그의 스토리는 취업난에 놓인 청춘의 오늘이었다.

또 공시생 3인방 김동영, 키, 공명은 각기 다른 이유와 목표를 가지고 노량진에 모인 청춘, 그 자체였다. 특히 김동영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가족들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으로 '짠내'를 자아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다시 홀로 마시는 '술'로 관통했다. 청춘들이 살아 가며 겪는 난관과 슬픔, 기쁨마저도 '혼술'이 함께했고, 위로와 눈물, 웃음이 '혼술' 안에 버무려졌다. 그렇게 '혼술남녀'는 웃음과 눈물을 모두 '혼술'로 담아내며 공감 드라마로 막을 내렸다.

reddgreen35@news1.kr



티보플레이 10월 1째주 시청률 BEST10

1	MBC	옥중화
2	KBS	TV소설(저 하늘의 태양이)
3	KBS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4	SBS	사랑이 오네요
5	MBC	불어라 미풍아
6	SBS	당신은 선물
7	MBC	좋은사람
8	KBS	여자의 비밀
9	MBC	다시시작해
10	KBS	별난가족

티보플레이 10월 1째주 신규 방송

1	KBS	노래가 좋아
2	CJ	노래의 탄생

티보플레이 10월 1째주 최신 영화

1	대결	이주승, 오지호
---	----	----------

'더케이투', 말도 안 되는 연기 · 몰입감

(서울=뉴스1스타) 김나희 기자 = '더 케이투'가 배우들의 열연과 긴장감 넘치는 대본 · 연출로 빨려들 것만 같은 몰입감을 선사했다. 지난 14일 저녁 8시 방송된 tvN '더 케이투(THE K2)' 7회에서는 신경전이 최고조로 달하는 최유진(송윤아 분)과 고안나(임윤아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아빠 장세준(조성하 분)을 찾아갔으나 외면당한 고안나에게 최유진은 "대체 뭘 기대하고 그 자리에 나타났던 것이냐. 네 아빠는 널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넌 네 아빠에게 아주 부담스러운 과거 일 뿐이다"라고 독설했다. 이에 김제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고안나를 안쓰럽게 바라보더니 "울지 마. 그리고 기다려. 내가 너희 아빠 데리고 올게"라고 그를 위로해 여심을 흔들었다.

등장인물들의 얽히고설킨 이해관계와 감정들을 미묘하게 드러내는 탄탄한 스토리, 화려한 액션 등 마치 영화를 연상케 하는 뛰어난 연출 등은 안방극장을 사로잡는 '더 케이투' 만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nahee126@news1.kr



TBO PLAY

보스톤권역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도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Mnet, O'live, OCN

The Best Underpaid, TBO

이정선 부동산

kw BOSTON-METRO KELLERWILLIAMS

CHUNG S. LEE

Mobile: 781.883.5984
Office: 617.535.7851
Fax: 617.542.0016
chunglee7@gmail.com
chunglee.kwrealty.com

607 Boylston Street, Suit 500
Boston, MA 02116



The 4th Annual YLS
The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Proudly Hosts:
2016 KACL Young Leaders Symposium

Guest speakers

MICHELLE WU
 BOSTON CITY COUNCIL PRESIDENT

DANIEL KOH
 CHIEF OF STAFF, BOSTON CITY MAYOR WALSH

KENNETH AN, ESQ.
 Director (former Supervisory Investigator)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LISA SON, Ph.D
 Professor, Dept of Psychology - Columbia University
 "Optimum Learning"

Date/Location

November 5th, 2016 (SAT)
2 P.M - 5 P.M

Harvard Law School
18 Everett Street Cambridge MA

Parking will be available

To register for the event:
<https://2016yls.eventbrite.com>

 Sponsored by the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Boston

 kac-ne.org
info@kac-ne.org
 KoreanAmericanCitizensLeague

2016 Korean 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 Young Leaders Symposium
Saturday, November 5th 2016, 2:00 pm - 6:30 pm

Program Schedule

Registration 2:00 pm - 2:15 pm 20 min	Raffle tickets are handed out during this period for the chance to win several prizes
Opening Remarks 2:15 pm - 2:30 pm 15 min	Executive Director Stephen Suh KACL-NE President Kyunghae Kay Lee Consul General Song Jun Ohm
Session I 2:30 pm - 2:50 pm 20 min	Michelle Wu City Council Representative At-Large and President of Boston City Council
2:50 pm - 3:10 pm 20 min	Daniel Koh Chief of Staff for Boston City Mayor Marty Walsh
3:10 pm - 3:20 pm 10 min	Coffee Break
3:20 pm - 3:40 pm 20 min	Kenneth An Director (and former Supervisory Investigator) of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3:40 pm - 4:00 pm 20 min	Dr. Lisa Son Professor of Psychology Department at Columbia University
Session II 4:00 pm - 4:30 pm	Group Session - Panelists and participants will discuss topics raised from Session I and will be introduced to small grants program
4:30 pm - 4:45 pm 20 min	Feedback and Evaluation forms will be collected
Closing Remarks 4:45 - 5:00 pm	Professor Kyungseok Choo
5:00 pm - 6:30 pm	Complimentary Dinner + Networking

일정: 11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 오후 6시 30분
 장소: 하버드 로스쿨 WCC 2019 Milstein West B
 주소 : 10 Everett St, Cambridge, MA 02138 (무료주차)
 당일 행사 저녁포함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시민협회 가 한인 차세대들에게 미 주류사회 진출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심어주기 위하여 제 4회 차세대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오는 11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하버드 로스쿨, Milstein East B 에서 열리는 제 4회 차세대 심포지움은

"Strategies for Successful Leadership and Civic Engagement in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라는 주제로 열린다. 주요 초청연사들은 다음과 같다.

1. 미셸 우 (Michelle Wu) * 보스톤 시의회 의장
 2. 대니얼 고 (Daniel Koh) * 보스톤 시장 워쉬 - 비서실장
 3. 케네스 안 (Kenneth An) * 연방정부 고용차별방지 (US EEOC) 국장
 4. 리사 손 (Lisa Son) * 콜롬비아대학 심리학 교수
- 美 주류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4명의 연사들이 초청된다.

11월 5일에 개최될 제 4회 시민협회 차세대 심포지움에 많은 한인 학생들과 차세대 한인들의 참석을 통해 많은 영감을 얻고 미 주류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4명의 연사로 부터 진로에 긴박한 상담 및 커리어에 대한 조언도 갖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차세대 심포지움 참석을 원할 경우:

이벤트 브라이트: 2016yls.eventbrite.com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KoreanAmericanCitizensLeague/

연락처: info@kac-ne.org

문의 사항은 이경혜 회장 (508)962-2689

김성군 이사장 (617)799-7033 로 연락하면 된다.

신영의 **세상 스케치**

568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2016 '제주올레 걷기축제'에 다녀와서...

1988년도 제주도를 찾았었고 그리고 28년 만에 처음 찾아가는 제주도였다. 한국을 자주 방문하면서도 제주도 방문이 참으로 오래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올가을 한국 방문에서는 꼭 제주도를 방문하여 올레길을 걸어보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처음 참석하게 된 제주올레길은 누구와 함께가 아닌 혼자서 걷고 오리라는 생각으로 여기저기 자료를 많이 찾아보게 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기 전 미국에서부터 마음의 설렘과 함께 두려움도 있었다. 그것은 여기저기 흥흥한 소식이 들리는 때라 불안감마저 들었기 때문이다.

2016 제주올레 걷기축제는 제주올레길을 하루 한 코스씩 걸으며 놀명 쉬멍 제주의 자연, 문화, 먹거리를 즐기는 축제로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10월 21일과 22일 진행된 이번 축제는 제주올레 1코스(광치기해변-시흥초등학교 15km)와 2코스(온평포구-광치기해변 14.5km)를 하루 한 코스씩 역방향으로 걸으며 진행되었다. 이번 제주올레 걷기축제에는 양일간 7000여 명의 도보 여행객이 참가했다고 한다. 이 축제를 위해 지역 주민들(종달

리부녀회, 시흥리부녀회, 고성리부녀회 등) 이 곳은 날씨에 비바람을 맞으며 걸어온 올레꾼들을 맛난 먹거리로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제주올레를 떠올리면 바로 이 사람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처음 제주올레 걷기를 시작한 제주의 딸 사단법인 제주올레의 서명숙 이사장이다. 그녀는 20여 년의 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훌쩍 떠난 스페인 산티아고 여행(800km) 순례자의 길을 걸으며 고향 제주에 치유와 행복의 길을 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5년간의 노력 끝에 제주를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올레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자동차와 자전거로 여행하는 것보다 걸어서 천천히 제주의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도시에서 지친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 받을까를 생각했던 그녀다.

"기존에 있던 길에 이름을 붙이고 내버려진 길을 재발견하고 막힌 곳은 연결해 새로운 길을 만들고 뭐 그런 거다. 그동안 외진 길이라 해서 발길이 끊어졌던 그런 길들의 가치를 되찾아주는 것이라고나 할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어머니가 기자 그만두고 제주도에 가서 길 내는 일을 하겠다고 했더니 '미친년'이라

했다. '그동안은 누가 딸 뭐하느냐고 물으면 언론사 국장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고향 가서 길 내고 다닌다"고 말해야 하느냐'고. 그리고 어머니는 36년 동안 서귀포의 상설시장에서 '서명숙 상회'라는 식료품 가게를 하셨었는데 이제는 그 시장 이름이 '올레시장'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번 제주올레 걷기축제에 참석한 진정한 이유는 내년 5월 초에 가깝게 지내는 지인과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계획하고 있었던 터라 제주올레길을 먼저 걸어보고 싶어서 결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걷기축제 참석을 계획하고 결정하면서 축제 참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 더 묵으며 제주올레길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졌다. 그리고 서울에서 불일을 보고 미련 없이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다. 혼자서 여행하기를 좋아하는 편이라 이번 제주도 여행도 혼자 하리란 생각을 했다. 그런데 마침 포함에 사는 지인이 이번 올레축제에 참석한다는 것이다.

올레 체험이 많은 지인과 함께 2016 제주올레 걷기축제에 참석하니 큰 도움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지인은 양일간의 축제를 마치고

포함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나는 혼자서 어느 코스를 선택해 제주올레길을 걸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첫 여행이니 혼자 걷기보다는 함께 걷는 것이 나를 뜻깊은 마음에 찾아보니 올레길을 함께 걷는 공간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오늘은 17코스를 걷게 되었는데 함께 걷기에 동참한 30대의 젊은이들 아홉 명과 50대 중반의 여성 셋 그리고 우리를 안내해준 자원봉사자들을 합해 모두 12명이 함께 걸었다.

이번 '2016 제주올레 걷기축제'에 참여하고 오늘 함께 걷기 체험을 하면서 '걸으멍 놀명 쉬멍' 제주의 자연, 문화, 먹거리를 즐기는 '느림의 치유' 축제임을 다시 또 확인하게 되었다. 만남이란 이렇게 설렘과 떨림의 순간을 지나 또 하나의 인연을 이어준다. 자연과 사람과 하나되어 길 위에서 서로 만나는 것이다. 올레꾼들의 인사는 '다시, 이 길에서 만나요' 하며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읽는다. 길을 걷다보면 마음의 근심 걱정이 덜어지고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길 위에서 쉬엄을 얻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다.



한담객설閑談客說: 感染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드라마와 채송화와 같이 피었다. 봉숭아꽃으로 손톱에 물을 들인다. 물을 들을적엔 백반白礬을 같이 쓴다. 백반을 기억하시는가. 혀에 대면 신맛이 나는 돌덩이이다. 모양은 화강암과는 다르고, 시냇가 조약돌과 다르다. 어릴적에 입에 대봤다. 덩치 큰 아이들 호주머니엔 조약돌 만한 것들이 들어있었고, 갖고 있는 애들은 조무래기들에게 아주 조금씩 맛보여 주곤 했다. 아이들이 말해줬다. 신비한 맛을 지닌 그 돌이름이 백반白礬이라고 갖고 싶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난 한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 (화학을 공부하면서, 그 진한 회색돌이 명반석이란 걸 알았다. 칼륨과 알루미늄을 함유한 황화염黃化鹽이다. 이런건 기억할 필요도 없다. 그저 그런가 보다 하시라. 약국에서 파는지 그건 모르겠다. 입에 대고 맛볼 생각도 하지 마시라. 맛없다.)

내 어린 시절, 집에서 떨지 않은 곳엔 큰 시냇물이 흘렀다. 시냇물은 폭이 넓었고, 흰색 자갈이 눈부시고 넓게 깔려 있었다. 물은 너무 맑아 올챙이 한마리 살 수 없었다. 내 어머니는 해가 좋은 날이면, 이불 훌쩍 빨래감을 들고 나섰다. 이해인 수녀의 시 한구절이다. 어머니도 우울했는지 그건 알 수 없다.

우울한 날은 빨래를 하십시오. 맑은 날이/소리내며 통겨울리는 노래를 들으면/마음이 밝아진답니다. (이해인, 빨래를 하십시오)

오.) 빨래 후, 자갈밭에 빨래는 넓게 널렸는데 또한 장관이었다. 어느날이다. 시냇물 구석 줄기가 셋파란걸 봤다. 파란 물줄기를 눈이 쫓아 올라갈 적에, 냇물가에서 솥다지를 걸고 무언가 열심히 끓이고 삶는게 보였다. 간이 염색 공장이었다. 푸른 물줄기는 그곳이 원천이었던 거다. 요사이라면, 오염물질 무단 방류로 벌금에 사회적 지탄대상일게다. 그런데, 예전에 그게 크게 나무랄 일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염색자는 공업용 단어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옛세대엔 생활의 단어였을게고 염색엔 백반白礬이 반드시 필요하다. 푸른 물줄기는 오히려 셋파란 하늘마냥 섬뜩했다.

어린 내가 또 헛갈렸다. 음식점 입구에 붙여진 백반이란 말을 보고 난 다음이다. 그럼 식당에서도 이 백반을 판다는 말인가? 알수없는 요지경이었다. 세월이 흐른 후 알았다. 백반白礬과 이 백반白飯은 다르다는 걸 말이다. 식당의 백반白飯은 흰쌀밥상이다. 쌀밥은 알았으니, 백반이란 말은 아직 어색할 적이다.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마가 9:3)

오늘 졸문의 제목은 感染이다. 신영각 선생의 '人'을 흉내냈다. 그렇다고 선생이 크게 나무라시지 않으실 거라 믿는다. 이순신장군의 칼에 새겨진 글귀이다. 한번에 쓸어 버려 산천을 피로 물들인다. 말은 섬뜩한데, 과연 무인답다.
一擲掃蕩 일취소탕 血染山河 혈염산하
소설가 김훈은 感染을 공업적 용어라 했다. 서정적인 단어일 수도 있을 텐데, 感染자를 삼엄하게 해석했다. 무장武將에게서 정抒情감을 요구하는 건 무리일게다. 感染은 물들인다는 말이다. 단풍의 붉은 색깔이 보스톤 가을을 물들인다.
봉선화가 봉숭아인줄 알지 못했다. 우리네 장독대 주변에 맨



MAYOR'S OFFICE FOR IMMIGRANT ADVANCEMENT
Martin J. Walsh, Mayor of Boston

JOIN MAYOR MARTIN J. WALSH AND THE OFFICE FOR IMMIGRANT ADVANCEMENT FOR

We Are Boston Gala

TUESDAY, NOVEMBER 29, 2016
BOSTON PARK PLAZA

Honorary Chair: **Mayor Martin J. Walsh**
Co-Chairs: **Rob DeMartini, New Balance Athletic Shoe, Inc.**
Steve Melia, TripAdvisor
Micho F. Spring, Weber Shandwick

Co-Hosted by:



SPECIAL GUEST APPEARANCE BY
"ORANGE IS THE NEW BLACK" STAR

DIANE GUERRE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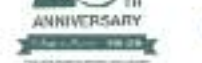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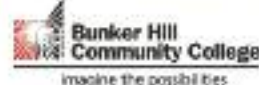
A NIGHT OF MULTICULTURAL MUSIC AND DANCE
FOOD BY IMPROPER BOSTONIAN + BOSTON'S BEST

HONORING RICHARD E. HOLBROOK OF EASTERN BANK, JOHN B. CRUZ OF CRUZ COMPANIES
AND CLEAR CHANNEL OUTDOOR

FOR TICKETS AND INFORMATION CONTACT AJ WILLIAMS EVENTS (617) 267-2244
OR VISIT OUR SITE FOR TICKETS

MOIA.EVENTBRITE.COM

Gala Sponsors:



Media Sponsors: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20. 새 길을 찾아서 (1)

인디언의 경제지립을 위한 몸부림 (계속)
그랜드캐년 국립공원 바로 서쪽 인디언보호구역(Hualapai Indian Reservation) 안에 스카이워크(skywalk)를 설치하는 등 공항과 카지노와 케이블카를 포함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라스베가스에서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까지는 자동차로 네 시간 이상 걸리는 데 비하여 이곳까지는 두어 시간이면 올 수 있어서 관광객들이 꽤나 몰리고 있다. 우리가 갔을 때에는 공항확장 등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케이블카 등 관광 인프라가 완성되면 국립공원에 견주어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곳 해발고도가 대충 2000m쯤인데 거기서 1500m를 내려가야 계곡 깊숙이 흐르고 있는 콜로라도 강에 이를 수 있는데,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계곡의 바닥까지 접근할 수 있게 되니까 대단한 인기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 안에는 공항이나 케이블카 설치를 꿈도 못 꾸는 데에 반하여, 비록 여기서도 환경론자 등으로부터의 저항 등 적지 않은 논쟁이 있기는 하였으나, 국립공원을 살짝 벗어난 이곳 인디언보호구역은 비교적 개발이 자유로운 모양이다. 아마도 지금쯤 백인들은 이 지역까지 국립공원화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물론 풍광 면에서는 그랜드캐년 국립공원에 비하면 골리앗과 다윗으로 비유될 정도이나, 비행기로 협곡을 돌아보면 더 근접해서 생생하게 볼 수 있기에

그 약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랜드 캐년 동쪽에서는 서쪽보다 엄청 더 큰 개발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도 백인들이 그어놓은 국립공원구역을 살짝 벗어난 나바호 네이션의 땅인데, 수억 달러를 들여서 1500m 아래 계곡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누구나 쉽게 캐년의 아랫부분까지 구경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을 포함해서 대규모 고급 관광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수년 전에 발표했다. 이름하여 Escalade 프로젝트라고 한다. 그런데, 백인정부와 환경론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사실, 원주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관광자원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절박한 문제인데, 배무른 사람들의 시각은 크게 다르다.

20. 새 길을 찾아서

샌드 크릭 대학살에 대한 감리교의 사죄

1864년 11월 29일에 있었던 샌드 크릭 대학살의 직접적인 책임자인 시빙턴 대령이 감리교 목사였으며 이 사건 주도자 중의 한 사람인 당시 콜로라도 주지사이던 에번스 역시 감리교 지도자이었던 점에 대하여 감리교는 1996년 4월에 열린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죄하였다. 또 2012년 4월에는 대규모 회개집회(Act of Repentance)를 여는 등 원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2014년에 개최된 대학살 150주년 기념

행사에서 히켄루퍼(John Hickenlooper) 콜로라도 주지사는 콜로라도 시민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1999년부터는 매년 대학살의 날에 샌드 크릭 대학살 기념위원회(Sand Creek Massacre Commemoration Commission) 주관으로 치유를 위한 달리기/걷기 행사가 치러지고 있다.

인디언문제 담당국의 175주년 기념 반성문

미국 내무부 산하의 인디언 담당국의 고버국장(Kevin Gover)은 2000년 9월 8일 창립 175주년 기념식에서 통렬한 자기 반성문을 발표했다. 상당히 과격적이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반성문의 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24년 3월에 먼로 대통령은 전쟁부(Department of War) 산하에 인디언담당국을 설치했다. 창설된 지 175주년이 되는 금년은 특히 새 세기와 새 천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래를 내다보기에 앞서 우리가 과거에 한 일들을 되돌아보면 175주년은 축하보다는 반성을 해야 할 때임을 알게 된다.

인디언국은 설립되면서부터 미국이 인디언의 뜻에 반하여 야망을 이루어 나가는 수단 역할을 해왔다. 인디언국의 첫 사명은 인디언들을 그들의 고향에서 내쫓아 추방하는 일이었

다. 1000마일이나 되는 눈물의 길을 따라 옮겨 가는 동안에 수천 명의 인디언들이 죽어갔다.

미국이 서부로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전부터 살고 있던 인디언들은 엄청난 시련을 받게 되었다. 고의적으로 전염병을 퍼뜨리고 들소떼를 박멸하고 인디언들의 심신을 피폐케 할 불순한 동기로 알코올을 제공하고 어린이와 여자들마저 학살한 일들은 단순히 서로 다른 두 문화의 충돌의 결과로 돌려버리기에 는 지은 죄가 너무 무겁다. 인디언국과 직원들은 그러한 파괴행위를 막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인디언국가와 애국적인 전사들이 쓰러져갔다. 샌드크릭, 와이타강과 운디드니에서 발생한 불필요하고 폭력적인 학살 사건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인디언의 경제를 황폐화 시켜 미국 정부에 의존케 만든 다음 인디언적인 모든 것을 파괴했다. 우리는 인디언의 말을 못 쓰게 하고 전통적인 종교를 금지시키고 인디언의 정부조직을 불법화시키고 인디언임을 부끄러워하도록 만들었다. 가장 나쁜 건 어린 학생들을 인디언 기숙학교에 수용하여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학대한 사실이다. 수치와 공포와 분노의 외상은 세대를 이어 전해져 알코올과 마약중독 가정폭력과 자살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디언 문제의 원인은 우리들이 제공했다. 인디언들의 궁핍, 무지, 질병은 우리 인디언담당국의 책임이다.

(다음 호에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51 화랑세기花郎世紀, 5세 풍월주風月主 사다함스多含(3)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지소태후는 옥진 형제와 가까이하지 않았다. 금진은 이에 문상蚊上에 물러나 살았다. ... 구리지는 낭도를 모아 금진을 원화源花로 삼고자 했다. 이보다 앞서 구리지는 숙위두상宿衛頭上으로서 금진의 명을 전殿 아래서 늘 받들었다. 구리지는 마음속으로 그녀를 원하여, 천주사天柱寺에서 무릇 5년을 발원했는데, 금진이 비로소 홀로 살게 되었다. 구리지는 이에 날마다 가서 원화가 될 계책을 바쳤다. 금진은 또한 나이가 적었기에 명리를 탐하여 허락하였다.

구리지는 또한 ... 원화라는 것은 의협의 인물로 낭도들과 더불어 죽음으로써 의리를 지킨다는 마음을 보이지 않으면 ... 금진이 말하기를 ... 구리지... 낭주에게 ...한 것이 무릇 5년 전의 일로 ...의 일이다. 금진은 이에 한탄하여 말하기를 “나는 ... 바라 ... 무리가 받들었다 ... 너의 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족하다” 고 했다. ... 말하기를 “네가 나로 하여금 ...” 라고 했다. 구리지가 말하기를 “신은 ... 아직 ... 의 몸 ... 허락합니다” 했다. 금진이 말하기를 “네가 나의 집 ... 황후皇后的 귀함으로 뒷간에서 사통을 허락하여 ...” 했다.]

이 부분도 탈자가 많아서 정확한 해독이 불가능하지만 금진과 구리지와와 관계, 지소태후와 금진과의 관계, 그리고 구리지의 출생 내역을 볼 수 있다. 옥진과 금진은 자매로서 1세 풍월주 위화랑의 딸들이다. 어머니는 오도부인이다. 그들 모두 법흥왕의 후궁이었다. 그러다가 법흥왕이 죽은 후 진흥왕의 후궁이 되었다. 여러 연유로 지소는 옥진과 금진을 좋아하지 않았다. 정확한 연유는 사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의 정치상황과 인맥關係를 살펴보면, 가장 큰 연유는 아마도 후계 문제로 지소와 옥진이 서로 대립하였다. 먼저 옥진은 박영실에 게로 시집을 갔는데, 시집가는 날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법흥왕이 후궁으로 삼았다. 그런데 여느 후궁과 달리 옥진을 맞을 때는 친히 결혼식(吉禮)을 올리고 궁으로 데려왔다. 궁주宮主의 지위를 얻은 옥진은 법흥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아 아들 비대전군比臺殿君을 낳았다. 물론 당시에는 법흥왕의 정비가 있었다. 정비보도保道부인(지소의 어머니)은 아들이 없었다. 그리고 비대가 태어난 후 법흥왕이 그녀에게 비구니가 되라는 명을 내렸다. 이렇게 법흥왕에게는 왕위를 계승할 적통의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법흥왕은 옥진에게서 태어난 비대로 태자를 책봉하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서 법흥왕의 딸인 지소와 아우인 입종 사이에서 태어난 삼맥종이 어린 나

이에 등극을 하니 그가 신라의 제24대왕 진흥왕이다. 법흥왕, 그는 왕권으로도 아들 비대를 태자로 책봉하지 못했던 연유는 옥진의 아버지 위화랑을 비롯한 많은 신하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옥진은 골품이 없다(무골품無骨品)’, 옥진은 다만 후궁이 될 수 있는 대원신통의 종족이었다. 즉 비대가 성골이 아니기에 왕이 될 수 없다는 논리였다. 법흥왕은 수 많은 비빈들 중에서 옥진을 가장 총애하였다. 총애뿐만 아니라 옥진을 신으로 여겼다. 법흥왕과 옥진의 교신상交神象이 신궁에 모셔져 있었다. 김대문의 증조할아버지인 12세 풍월주 보리공조에 보면 하종이 신궁에 들어갈 때에 법흥왕과 옥진공주의 교신상 중에 옥진에게 먼저 참배하였다. 이에 보리가 하종에게 잘못이 아닌지 묻자, 하종이 대답하길 “선제(법흥왕) 또한 말하기를 ‘역조창생이 짐을 신으로 여기는데, 짐은 옥진을 신으로 여긴다.’” 라고 대답했다. 당시 신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중의 하나였던 옥진은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법흥왕이 신격화한 여인이었다. 옥진의 아버지는 위화랑이며 어머니는 오도낭주이다. 옥진은 사도왕후(진흥왕의 정비)의 어머니이다. 사도왕후의 아버지는 박영실이다. 그리고 칠색조의 꿈을 꾸고는 법흥왕에게 동침을 원하였지만 왕은 빈첩의 탄생임을 알고 영실공과 동침을 하게 하여 얻은 딸이 바로 묘도부인이

다. 묘도는 너무 어려서 왕을 받들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날 옥진은 또 칠색조의 꿈을 꾸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딸 묘도의 품으로 날아 들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묘도의 처소로 가보니 그녀가 미진부와 합방하고 있었다. 이렇게 태어난 여인이 바로 신라의 권력자 미실美室이다. 미실의 외모는 ‘용모가 절묘하여 풍만함은 옥진을 닮았고, 명랑함은 벽화를 닮았고, 아름다움은 오도를 닮았다’.

또다른 지소의 연유는 자신의 딸 숙명공주를 진흥왕의 왕비로 들이면서 나이가 든 색공의 후궁들을 탐탁치 않게 여겼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금진은 결국 궁에서 계속 살지 못하고 문상이란 지역으로 나와서 홀로 살게 되었다. 드디어 구리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구리지는 오래 전부터 금진을 연모하여 절에 가서 5년이나 기도를 드렸다. 부처의 음덕인지는 몰라도 구리지의 뜻은 이루어졌고, 그들은 토함과 사다함 그리고 딸 새달을 낳았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 & 성형 & 전문치료 & 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코수술, 코재수술 잘하는 성형외과

아이앤지성형외과

- 1:1 개인 맞춤 시스템 — 수술 전 상담부터 수술의 전 과정, 수술 후 체계적인 관리까지 맞춤서비스 제공
- 전문의 직접 진료 시스템 — 선진부터 수술의 전 과정, 수술 후 경과관리까지 전문의가 진료에 직접 참여하고 책임지는 직접 진료 시스템 진행
- 첨단 안전관리 시스템 — 모든 수술 전 과정에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최후까지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 진행
-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경과관리와 세심한 진료로 빠른 회복과 복구를 위한 체계적인 사후서비스 제공
- 끊임없는 교육 연구 시스템 — 선진적인 연구, 학습 및 전문적인 학습활동으로 세계 최첨단 성형 전문의를 대상으로 교육 및 강연

아이앤지 휴람이벤트

- ☑ 이마 실리프팅 ~~180~~만원 → **100**만원
- ☑ V라인 턱선 실리프팅 ~~150~~만원 → **70**만원 HOT
- ☑ 아이앤지 코성형 ~~250~~만원 / 아이앤지 코재수술 ~~350~~만원



김자수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 1989년 성형외과 전문의
-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피부성형외과학회 정회원
- 한국성형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피부성형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피부성형외과학회 정회원



성세함과 꼼꼼함으로 100%의 예술을 만듭니다!

리본성형외과

- 1989년부터 현재까지 25년 의료무사고 병원
- 최첨단 의료장비 3D 성형 시뮬레이션
- 1mm의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시술



2주전 후사건
가장 안전하고
비밀유지!!!

쌍꺼풀 매몰

~~132~~만원

99만원

쌍꺼풀+ 눈매교정

~~330~~만원

220만원

눈썹거상+ 하안검

~~396~~만원

250만원



핵심의료사업팀장 ★ 무료 전화(Call for Free) ★
김수남 1-844-DO HURAM (1-844-384-8728)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미국내 상담문의
보스톤코리아
Tel. 617.955.9112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쓸쓸한 사랑, 그 낭만에 대하여...(2)"

-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XIX -

알록달록한 물감을 칠하듯, 온 세상이 단풍으로 붉게 타올랐던 것이 바로 어제 같은데, 그 아름답던 단풍이 수많은 낙엽이 되어 여기저기 떨어져 간다. 그토록 열렬했던 사랑이 쓸쓸히 떠나가는 모습과 너무도 닮은 꼴이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타다'는 도종환의 시가 생각난다. 하지만,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일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특히, 아끼고 사랑했던 그 누군가를 떠나 보내는 일은 죽을만큼 아플 수 있다.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보내야 함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소유하려 하면 할수록, 갖고 싶은 것은 더 쉽게 멀어져 간다. 그래서 사랑이 떠나려 할 때, 그 사랑을 과감히 버려야 할 이유가 있다. 사랑을 소유하려 하면 할수록 더 멀리 떠나버리고, 떠나가는 사랑에게 집착한다면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마음에 남기기 때문이다.

김현식의 '사랑, 사랑, 사랑' 노래 가사처럼 '그 흔한 사랑 한번 못 해본 사람, 그 흔한 사랑 너무 많이 한 사람, 한번쯤 사랑에 울어 보지 못한 사람, 한번쯤 사랑에 웃어 보지 못한 사람'은 평생 유아적인 나르시시틱한 사랑을 떠나지 못하고, 오디푸스 갈등속의 어른 아이로 있기가 쉽다. 따라서 한번은 자신이 아닌 그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고, 헤어져 볼 필요가 있다. 최백호의 노래처럼 사랑의 낭만을 그리워하고, 양희은의 노래가사처럼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될 수 있을까' 의심하며 쓸쓸한 사랑을 해보아야 어른이 된다. 단, 너무 깊은 상처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랑만 아니면 된다. 너무 깊은 상처는 새도-매조키즘의 관계 혹은 유아적인 나르시시즘에 집착하며 평생 살아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교의 '효'와 '정절'이 각인되어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정한 존재이기 보다 무섭게 틀을 따라야 하는 감정을 통제받은 사람일수록 이성과 사랑에 빠지기가 힘들다. 로맨틱한 감정이 생기면, 무의식적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생각나면서 웬지 그러면 안될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

이다. 무의식적인 갈등을 계속 누르며, 내적 갈등이 증가되면 이상한 증후군으로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 언제나 웃어야만 예쁘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강박적 믿음의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동화책 괴물새의 주인공처럼 항상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허황된 꿈만 꾸며 더 나은 삶이 아무런 노력없이도 이뤄 진다고 바라는 '괴물새 증후군', 피터팬 동화처럼 성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있다. 더 어려워지고 싶은 동안 열망, 더 예뻐지고 더 멋있어지려 하는 성형중독, 운동중독이 만연하다. 사실 더 어려워지고, 더 썩시하고, 더 멋있는 사람들이 많아 짐 에도 불구하고 그 흔한 사랑에 제대로 빠져들지 못하고, 유아적 나르시즘에 빠져가는 어른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지난 번 칼럼에 이어 오디푸스의 운명을 다시 이야기해본다. 누구나가 오디푸스의 운명을 짊어지고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신 사실을 안 순간부터 어머니는 운명적으로 자신보다 아이에게 더 애절한 애정을 갖는다. 아이가 태어난 후, 어머니와 아이는 마치 두 몸이 하나가 되는 절대적인 공존관계의 일치(Symbiotic Union)에 빠지면서, 유아는 유아적인 나르시시틱 사랑에 흠뻑 젖는다. 유아의 시기를 지나 아이가 되면서 오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의 시기를 통하게 된다. 아버지의 존재가 인식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상화, 즉, 남이는 어머니를 통해, 여아는 아버지를 통해 이성간의 관계를 처음 배우게 된다. 처음으로 갖는 삼각관계 경험이다. 이 삼각관계는 아버지, 제 삼자의 등장으로 어머니와 아이만의 완전한 합일의 환각적인 나르시시틱한 관계를 버리게 하기에 갈등을 일으킨다. 김혜남은 자신의 책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있을까?"에서 오디푸스의 갈등을 잘 설명해준다. '프로이드는 성인들 인간관계 모두는 이전 감정의 재편집이며, 아이가 생후 초기 어머니와 나눴던 유대감과 자라면서 오디푸스 갈등과 관련해 아버지에게 느꼈던 감정이 바로 사랑의 끌림으로

재현한다' 고 한다.

그래서 첫 사랑은 달콤하고 신비할 수 밖에 없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갖는 이성간의 사랑은 아직 부모와의 유아적인 나르시시틱한 사랑법과 겹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황홀한 상태에서 성적 욕망이 생겨나면 오이디푸스의 갈등은 걸잡을 수 없이 복잡해진다. 자신이 아닌 다른 이를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겪어보면서 유아적인 나르시시틱의 사랑에서 벗어나 성숙한 사랑을 배우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다른 이를 사랑하는 일이 힘들어지면서 다시 부모님과 연결된 오이디푸스 갈등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이렇게 첫 사랑은 오이디푸스의 갈등을 극대화시킨다. 첫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깨지는 과정에서 부모와의 오이디푸스 갈등을 이기고, 자신만의 사랑법을 체득한다면 오이디푸스 갈등을 벗어나 어른이 되는 길에 들어서게 된다. 유아적인 나르시시틱한 사랑이 아닌, 성숙한 사랑을 배우게 된다면 그보다 더한 생의 선물은 없다. '효'와 '정절'이 각인되어 자란 구 세대 한국인들 중, 대부분 첫 사랑은 부모의 통제와 억압으로 실패를 본 사례가 많다. 첫 사랑이 깨지더라도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쓸쓸한 사랑이 되며 낭만을 노래 할지언정, 그 옛사랑은 현실에 얽매어 살아가면서 가끔씩 생애 향기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첫 사랑이 다 낭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맹목적이고 순결했던 마음에 대못을 박고 떠난 옛 연인을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자신을 끔찍히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첫 사랑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아, 결혼 생활이 너무 밋밋하다며 과거의 사랑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 크리스틴은 16살에 첫 사랑에 빠져서 흥역을 치루었다. 크리스틴의 남편, 팀은 크리스틴과의 불타던 사랑이 식어가지 다른 여자들을 기웃거렸다. 때로는 모욕을 주며, 크리스틴을 무시했다. 나쁜 남자인지 알면서도, 떠나지 못하고 그의 주위를 맴돌다 치욕적인 버림을 받았다. 크리스틴의 부모는 사이가 매우

안 좋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일하는 중, 낙상으로 다리를 크게 다쳐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되었다. 크리스틴이 3살때 일어난 사고였다. 크리스틴의 어머니는 생계를 돌보아야 하기에 항상 불만에 차 있었고, 특 하면 아버지의 무능을 경멸했다. 아버지 손에서 자라면서 어릴적부터 아버지를 돌보아야 했고, 그렇게 아버지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자라났다. 처음 테라피를 시작할때는 자신이 아버지를 돌보는 일을 좋아했고 너무나 좋은 관계를 가졌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픈 아버지를 돌보는 일이 너무나 지겹고 화가 나는 일이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런지, 자신이 사춘기를 들어서자마자, 혼자서 짝사랑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크리스틴은 자신의 오이디푸스 갈등을 아버지의 나약함과 아주 다른 상상속의 이상화 대상(Imaginary Object), '터프한 남친'들로 대체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문제로 유명한 팀과 첫 사랑에 빠져들었다. 팀은 갱의 리더였고, 특하면 싸움에 결부되어 소년원을 들락날락 해야만 했다. 하지만, 크리스틴은 자신이 상상속에서 이상화한 터프한 남자 팀을 만나면서 태어나 처음으로 너무나 강렬하게 행복한 순간을 느꼈다. 그녀의 행복한 시간도 잠시, 팀은 불타는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했고, 그는 무참히 그녀를 버렸다.

그 이후, 크리스틴은 해결되지 않은 오이디푸스 갈등과 첫 사랑의 무참한 실패가 겹쳐져서 '새도 매조키시틱한 (Sado-Masochistic)' 관계에 빠져들어갔다. 나쁜 남자의 새디시틱한 취급에서 느껴지던 황홀했던 성의 욕구는 로맨틱한 감정을 새도 매조키시틱한 관계에서만 느끼게 했다. 거둬진 나쁜 남자들과 관계에서 심신이 지쳐가던 그녀에게 지금의 남편이 나타났고, 결혼을 했다. 너무나 감사한 남편이었지만, 남편과의 성생활에서는 나쁜 남자들과 가졌던 성의 욕구가 생겨나지 않았다. 크리스틴은 남편과의 성생활을 피했고, 성생활에 불만이 있던 남편은 커플 테라피를 요청했다. 지면상, '쓸쓸한 사랑, 낭만에 대하여'의 다음 칼럼을 계속해보도록 한다.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TBO PLAY
보스톤권 지역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도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etc.

The Best Underworld, TBO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2세, 3세대를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강원도에서 강력 추천품!

강원도 우수 농수산물전

알배기도루묵 10 box 한정판매

시골장터

교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장소 : 뉴릴라이어블 마켓

45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TEL. 617-623-9620

행사 기간 : 11월4일(금)~11월6일(일), 3일장

행사 문의 : 617.623.9620

<p>갯갈류</p> <p>명란젓, 창란젓, 조개젓, 어리굴젓, 가지미 식혜, 낙지젓, 갈치숙젓, 멧게젓, 오징어젓, 황태회무침</p> 	<p>반찬류</p> <p>무말랭이, 고들빼기, 도라지 무침, 더덕무침, 매실장아치, 양념깻잎, 양념고추, 된장깻잎, 된장고추, 마늘종, 방게무침등</p> 	<p>나물류</p> <p>취나물, 곤드레, 부자깻이, 건도라지, 토란대, 표고버섯, 무청시래기, 무말랭이 등</p> 	<p>면치류</p> <p>다시면치, 볶음면치, 지리면치, 멸치국물용 가루</p>	<p>떡종류</p> <p>썩떡, 안흥전빵, 모시잎송편, 모시잎계떡</p>
<p>건어물</p> <p>황태포, 황태채, 북어채, 황태머리, 흥진미채, 마른오징어, 전새우, 노가리등, 가문어, 디포리, 벤건조오징어</p> 	<p>해초류</p> <p>참미역, 미역귀, 들자반 김, 김밥용 김, 즉석구이 등</p> <p>말린꽃</p> 	<p>생선류</p> <p>삭힌 용어회, 글비, 알배기 도루묵</p> 	<p>기타</p> <p>잡쌀떡과, 100% 표고버섯가루 100% 다시마가루 100% 도라지가루</p> <p>감자옹심이, 감자전, 썩유과, 대봉꽃감</p> 	
<p>건강식품</p> <p>삼계탕용 재료, 백식원액</p> 	<p>장류</p> <p>고추장, 된장, 막장, 고로쇠 국간장, 청국장, 다시마 국간장, 고추가루</p> 	<p>잡곡</p> <p>메밀부침가루, 메밀국수, 은행마죽, 벼싯더덕마죽, 들깨가루, 엿기름, 엿</p>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53) 평생보장연금

어뉴어티를 광고하고 선전하는 문구를 보면 노후대책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1. 주식시장 하락에 따른 원금손실이 전혀 없이 원금이 보장되는 안정성, 2. 투자하며 10% 보너스와 매년 10%씩 이자를 받아 복리로 증식이 되는 상품, 3. 보장되지 않는 자산 즉 401(k), SEP, IRA, 등을 평생 수입이 보장되는 자산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뉴어티(연금)다.)

보험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뉴어티라는 보험상품을 만듭니다. 모든 장사가 그러하듯 상품을 팔아야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재정설계사가 어뉴어티를 팔면 수수료(Commission)를 줍니다. 이런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판매인(Salesman)은 열심히 노력합니다. 어뉴어티를 팔면 받을 수 있는 평균 수수료는 평균 8%(New Rule's Nest Target: Annuities, WSJ, Feb. 9, 2016)라고 합니다. 어떤 판매원은 '자기는 수수료를 투자자에게 받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받는다'고 말합니다. '보험회사는 왜 이 사람에게 수수료를 지급할까요?' 어뉴어티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어뉴어티 상품에 대한 경고와 불평

(Complaints)이 미국의 금융감독기관(SEC, FINRA, 등)에서 자주 거론됩니다. 하와이 주 정부(Securities-Department of Commerce and Consumer Affairs)에서는 변동성 어뉴어티(Variable Annuity) 사기를 조심하라는 경고문(Hawaii's Fraud Prevention & Resource Guide)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경고문이 나오는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보장연금'이 나온다고 하니 이것보다 더 좋은 투자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공짜로 돈이 떨어지는 기분입니다. 어뉴어티 광고 내용을 보고 싶다면 필자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모든 투자는 투자경비가 있습니다. 분명 어뉴어티도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원은 투자경비를 전혀 거론하지 않습니다.

어뉴어티 판매인이 받는 8% 수수료 외에 보험회사가 투자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이 경비가 평균 3.61%(Money, Feb. 2012)라고 합니다. 어뉴어티에 투자하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우를 영어로 직접 알아봅니다.

*어뉴어티마다 부과비용이 다를 수 있습

니다.

*Mortality & Expense Risk - 1.18%

*Administrative Fees - 0.14%

*Guaranteed Minimum Death Benefit Rider - 0.51%

*Guaranteed Lifetime Withdrawal Benefit Rider - 0.84%

*Fund Expense for Underlying Funds - 0.94%

변동성 어뉴어티나 인덱스 어뉴어티나 결국에는 뮤추얼 펀드(Subaccount)에 투자됩니다. 한 투자자가 어뉴어티에 투자하지 않고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한다고 합시다. 한 예로 벵가드 S&P 500의 투자 비용은 0.05%입니다. 지난 30년 주식시장 연평균은 약 11%입니다.

벵가드 인덱스 펀드에 30만 불 투자했다면 680만 불로 증가합니다. 어뉴어티 투자는 수수료로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가정해도 250만 불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뉴어티에서 매년 부과하는 경비 때문에 무려 430만 불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점을 투자자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어뉴어티에 부과되는 모든 경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위의 경우는 단지 경비만을 계산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뉴어티는 받을 수 있는 수익률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익상한선(Caps)'입니다. '수익상한선'이 5%로 정해졌다면 주식시장 수익률이 9%라고 하면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은 5%로 고정됩니다. 주식시장 지수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수가 아니라 보험회사가 선정한 지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 수익률을 계산할 때 주식배당금(Dividend)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이자를 준다'라는 말에 투자자는 기쁜 마음으로 어뉴어티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10% 이자는 투자금 전체에서 몇 퍼센트에만 적용합니다. 이것을 참가비율(Participation Rate)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투자자는 화려한 무지개 뒤에 숨어있는 어뉴어티의 진실을 모릅니다.

'평생보장연금'이란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병통치약이 없는 것처럼 어떤 한 투자상품이 노후대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정설계사라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비싼 금융상품을 투자자에게 파는 것뿐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소피아 선생님의 지난 칼럼은 mywiseprep.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선거의 잡다한 역사(3) 선거, 그리고 슬로건

누구나 기억하다시피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 시절의 슬로건은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였다. 현직대통령의 당선에 슬로건이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결국 '그녀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는 냉소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요즘이다. 전직 대통령은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고 선거에 임했다했고, 확실히 '실천'이나 '경제'라는 구체적인 단어들도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는 정치를 꿈꾸는 국민들의 바람 혹은 '나도 잘 살고 싶은 욕망이 투영된 선거 결과를 봤다.

실제 결과의 승패를 차치하고서라도, 캠페인 슬로건이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일부인 것은 사실이다. 캠페인 슬로건이 맥락 없이 갑자기 튀어나올 리는 없다. 찝찝한 슬로건으로 공감을 이끌어 내고 선동을 한다는 것은 투표권자의 드러난 혹은 감춰진 욕망을 자극하는 치밀한 작업이니 "시장조사"가 당연히 앞섰을 것이다.

가령 공화당 후보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는 과거의 미국은 위대했으나 현재(즉, 오바마 행정부 8년)의 미국은 위대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통해, '트럼프가 말하는) 미국인'들의 현재 정권에 대한 불만 혹은 분노를 자극한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의 현재 캠페인 슬로건은 1980년 도널드 레이건의 '미국을 다시 위

대하게 만들도록 Let Make America Great Again)에 대한 오마주(혹은 표절!)이다.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함께해서 더 강한 Stronger Together'는 다양한 맥락으로 읽힌다. 가령 특정 이민자그룹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트럼프에 대한 반박의 메시지로 읽힐 수도 있고, 민주당 내에서 좀더 보수적인 그룹과 버니 샌더스의 열풍에서 확인했던 진보적인 그룹들을 향한 메시지로 읽힐 수도 있다. 지금이 어렵다면,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강한 여성의 이미지를 가진 힐러리만큼 그런 대통령과 함께하면 '더' 강하다는 메시지도 들린다.

정책보다는 이미지가 주축이된 1840년 선거 미국 대선에서 캠페인 슬로건이 처음 중요하게 등장한 것은 일명 '통나무집 선거'라고 불리는 1840년 대선이었다. 민주당 후보로는 현직대통령이었던 마틴 밴 뷰렌이, 그리고 휘그당 후보로는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 출마했다. 자칫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도 있던 노예제나 중앙은행(National Bank) 문제를 직접 건드리기 싫었던 해리슨 진영이 내세운 슬로건은 "통나무집과 사과술(Log Cabin and Hard Cider)"였다. 무자비한 인디언 토벌로도 이름을 날리며 테쿰세 연합을 무너뜨린 티피카누 전투를 이끌었던 군인 출신 해리슨 대통령은, 서민이 사는 통나무집, 하층민이 즐겨 마시는 사과술의 은유를 통해 자신이 서민의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폭넓은 지지층을 만들었다(그러나 사실, 해리슨은 버지니아의 부유한 가문출신이었다).

1840년 선거에서는 로고송도 등장했다. 그 로고 송 중 하나인 Tippecanoe and Tyler, Too 는 해리슨이 승전한 티피카누 그리고 또 다른 전쟁영웅으로 해리슨의 러닝메이트였던 타이일러를 통해 상대방 뷰렌의 유약한 이미지를 공격했고, 이내 슬로건처럼 사용되기도 했다. 흥미롭게도(혹은 테쿰세의 저주에 의해서!) 해리슨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 폐렴에 걸려 한달만에 사망했고, 타이일러는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1950년 대의 두 선거:나는 아이크가 좋아요 정책에 관한 내용은 없는데 이미지는 지배적이었던 또 다른 슬로건은 아이젠하워를 선택한 1952년 선거에서도 등장했다. 물론 1932년 선거이후 1944년 선거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출신 프랭클린 루즈벨트(FDR)가 연임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선거에서 다시 민주당의 해리 트루먼이 당선되었으니, 그 괴로움에라도 한 번쯤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컸던 것은 사실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만!) 공화당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유세장을 가득메운 피켓에는 "I like Ike", "We like Ike"가 가득 메우고 있었다 (Ike 는 아이젠하워의 별명이다). 심지어 1956년의 캠페인 슬로건은 "I still like Ike" 였다. 2차대전의 영웅이자 미소가 멋진 아이크가 좋다는데 구구

절절한 이유따위는 별 의미가 없었던 그런 시대였다. 이정도라면 "(상대당 후보인) 제임스 K. Polk는 누구인가?"를 캠페인 슬로건으로 내세운 1844년 선거의 헨리 클레이(휘그당)와는 비교도 안되게 효과적인 선거 슬로건이었다.

1920년, 정상으로 돌아가자(Return to Normalcy)

1차 대전 참전 이후 사회적 혼돈의 상태에서, 윌슨 대통령의 대중적 인기가 바닥을 칠 무렵, 공화당의 워렌 하딩이 들고나온 선거 캠페인 슬로건은 Return to Normalcy였다. 시오도어 루즈벨트, 우드로윌슨 등이 기여했던 혁신주의(Progressivism)을 통한 개혁도 더이상 싫다, 이민자도 싫다, 갑자기 세계 무대에서 고상하고 정의로운 척하는 것도 질렸다...하는 정서에 부응하는 슬로건이었다. 당시 하딩은 "미국은 영웅(hero)이 아니라 치유(healing)를, 가망없는 처방(nostrums)이 아니라 정상(normalcy)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연설하곤 했다. '정상'으로 돌아가자'고 외친 하딩은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대통령으로서의 그는 매우 비정상적이었다. 무엇보다도 전성문 없고 부패한, 일명 오하이오 갱단(Ohio Gangs)이라고 불리는 측근들의 비리와 스캔들을 어찌지 못했다. 그스 트레스패인이었을까? 하딩은 연설 여행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임기중 사망한 다섯번째 대통령으로 기억되었다.

Olive Since 2008
 2008년부터 전문적인 광고제작을 서비스한
 티보플레이를 개성하고 있습니다.
 알맞은 사마귀는 동시제작으로 우리 특장점

한국어권의 한국방송 및 파산영화
 다양하게 즐기는 합법 IPTV **TBO**

합법 한국방송 티보플레이에서
 명품 교양채널 **MBN**을
실시간으로 만난다
 이제 **MBN**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티보에서 시청하세요



김주하앵커의
MBN 뉴스8
 진심을 담아 진심을 전하는 뉴스



MBN 런칭 기념 가입할인 혜택!

- 신규가입 고객 ~~\$39.99~~ /월 → **\$29.99** /월
- 케이블 TV에서 티보플레이로 전환하시는 분께 드리는 혜택!
- \$29.99** /월 + 1달 추가 무료 이용
 + 1년간 유료영화, 성인영화 무료

*케이블 전환 고객님은 전달요금 빌링지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TBO PLAY
 티보플레이

KBS, MBC, SBS, tvN, OCN, JTBC, MBN, Olive, Xtv, S, O-TV, CGV

티보플레이 지역별 가입안내

- 서울 (02) 253-855-1004, 대구 (051) 406-257-2525, 샌디에고 (619) 318-4182, LA (213) 263-1235
- 시애틀 (206) 847-901-4112, 글라스고우 (New Korea) 812-347-9111, 샌안토니오 (281) 220-7773, 앨버커키 (505) 253-7773
- 이탈리안 (SNC Tech LLC) 678-684-6514, 오키호 (주인) 287-230-7773, 비자니아 (VNU Computer) 709-942-6822
- 보스턴 (The Boston Korea) 617-955-9112, NY 교차로 (Yochan) 212-855-8635, New York, New Jersey 212-488-1072
- 트루노 (강원) 905-832-3333, 밴쿠버 (교차로) 604-420-1088

상당할 가입문의 무료전화
617-955-9112
 LA 가입문의 213-999-7090
 본사주소: 3435 Wilshire Blvd #2915, LA, CA 90010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 소식 (2016년 10월 넷째주)

● E-1 & 2 비자 신청/연장

최근 이민국은 E-1 또는 E-2 비자의 신청과 연장신청에서 E-1/E-2 사업체에 대한 VIBE(Validation Instrument for Business Enterprises) 라는 시스템에 가입 여부를 추가 서류 요청서를 통해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민국의 편지내용을 보면 꼭 VIBE에 가입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지만 추가서류 요청을 통해 전달된 내용이라 반드시 이 시스템에 가입해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VIBE 가입은 이민국의 권고 사항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가입하신 후 그 정보를 보내셔도 되지만 가입하지 않은 것이 거부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추가서류 요청을 통해 흔히 요구되는 또다른 질문은 E-1/E-2 사업체의 Telephone Directory Listing 에 가입여부입니다. 마찬가지로, 추가서류 요청으로 요청된 내용이니 꼭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화번호부에 회사의 전화번호를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하는 업체는 수도룩합니다. 대신, 인터넷 사이트 주소라든지 Yelp 같은 매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로도 이 요구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DACA & DAPA 중지명령

지난 10월3일 연방 대법원은 DAPA란 제도(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서류미비 부모들에게 추방을 면제해주고 합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와 DACA+(현재 시행되고 있는 DACA(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추방을 면제해주고 합법적 노동을 허락해 주는 제도)의 확대시행)에 대한 실행 금지에 대한 항소신청을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얽혀있어서 이에 대한 기사들을 읽으면 내용이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가지 확실한 것은 시민권자를 자식으로 두고 계산 서류미비 부모님들에 대한 어떠한 이민 혜택이 현재까지는 없다는 것이 앞으로 수 개월안에는 없을겁니다. 몇 년째 여기에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참 아쉬운 소식이지만 이점 꼭 주지하셔서 이민 사기에 피해를 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이민 신청료 인상

오는 2016년 12월23일 부터 대부분 모든 이민/비이민 관련 신청서들에 대한 신청료가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0 이후 6년만에 처음 있는 것으로 평균 21%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인상사유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고 이번 인상으로 이민사기 색출과 방지

가 강화되고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하니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EB-5 같이 투자를 통한 신청자들에게 대한 대대적 신청서 인상은 긍정적이라 봅니다. 예를들어, EB-5 투자자들이 신청하는 I-526 의 경우 현행 \$1,500 에서 \$3,675 로 인상됩니다. 또한 EB-5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Regional Center 를 신청하는 I-924는 현행 \$6,230 에서 \$17,795로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신청자들에게 부담되는 영주권 신청서 (I-485) 와 시민권 신청료의 인상은 좀 우려가 됩니다. I-485 의 신청료는 현행 \$985 에서 \$155 인상된 \$1,140 이 됐고 시민권 신청료는 현행 \$595에서 무려 \$45 인상된 \$640 로 인상됐습니다. 영주권과 시민권은 여기에 지문료 \$85 도 내야하니 새로운 신청료는 각각 \$1,225 와 \$725 가 됩니다. 상당히 부담되는 비용입니다. 다행히 지문료 \$85 는 인상되지 않았으니 한가지 위안거리는 있습니다. 새로운 신청료는 이민국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forms/our-fees>

오는 12월23일 인지가 찍혀서 이민국에 우송되는 모든 신청서에 해당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I-9 Updated

한 고용인이 피고용인을 고용할 때 합법적 신분인지를 확인하는 I-9 에 대한 개정이 있습니다. 2017년 1월21일 부터는 반드시 개정된 양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 I-20 발행자격 박탈

I-20 와 SEVIS 를 담당하는 ICE(이민집행국) 은 10월6일부로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Herguan University 의 SEVIS 접속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2017년 1월부터) 이 대학의 I-20 발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 학교 재학생들에게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학생의 잘못이 아니지만 이민국에서 이 학교 재학생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은 단 3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내년 1월까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둘째는 다른 신분으로의 전환하거나 마지막으로 미국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학교에 재학생들에게는 황당하게 들릴 해결책이겠지만 현행법 상 위 3가지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F-1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 또는 앞으로 F-1 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비용이 다른 학교에 비해 현저히 싸거나 출석 또는 졸업 요건이 상당히 낮은 학교들은 선택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 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톤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상법]

소규모 비즈니스 매매 절차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얼마 전에 자주 가던 레스토랑에 들어서는데 입구에서 "Under New Management" 사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취향을 잘 알고 있는 주인이 갑자기 변경되었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느끼는 것도 잠시, 친절하게 고객을 맞이하는 활기에 가득 찬 새로운 오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비즈니스 매매를 진행하다 보니, 이러한 새로운 매장에 대한 인수 과정도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오너분들께서 접하게 되는 비즈니스 매매 절차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비즈니스 매매는 우리 주위에 가깝게 접하게 되는 소규모 상점 및 사업체로부터 누구나 이만큼 들으면 알 수 있는 대기업의 인수합병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한인이 많이 운영하는 세탁소, 네일가게, 델리 등의 비즈니스 매매로부터 최근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던 미주 한인 은행 규모 1,2위인 BNCN 은행과 웰셔은행의 합병도 비즈니스 매매의 한 방법입니다. 큰 흐름에서의 비즈니스 매매 절차는 유사하겠지만 그 세부내용에서는 상황에 따른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미주 한인 사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규모 비즈니스 매매 절차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매매를 위해서는 먼저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군과 그 외 여러 조건에 부합한 적합한 매물에 대한 분석과 조사를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중개인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기도 하고, 또는 각종 정보지 및 인터넷상의 리스팅으로 매물을 접하기도 합니다. 관심이 가는 매물을 확인하면, 현 오너나 사업체의 대표/담당자 또는 중개인과 접촉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사업체에 대한 기본 조사를 진행하고 사업체 방문 및 미팅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사업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 공유를 위해, 비즈니스 매매를 위해 공개되는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를 약속하는 'Non-Disclosure/Confidentiality Agreement(기밀유지계약서)'에서 명을 하기도 합니다. 비즈니스 매매 중에는 재정과 관련한 사업체의 월별/분기별/연도별 손익, 매출, 그리고 지출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비즈니스 운영방식 등의 영업비밀 정보를 공

유하게 되므로 제삼자에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인 것입니다.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후, 비즈니스의 가격 측정과 협상을 통해 구매자의 지급 방식에 대한 내용 또한 결정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매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협의를 통해 타결되면 양 당사자들은 '인수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체결합니다. 이후 이 인수의향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양 당사자의 변호인들이 '비즈니스 매매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소규모 비즈니스 매매는 '주식 매각' 또는 '자산 매각'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사업체의 채고, 기계, 상권, 상표, 평판, 리스계약 권리 등을 매각하는 '자산 매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때 '자산 매각'이란 쉽게 이야기해서, 사업체가 가진 거의 모든 유형무형 자산들을 새로운 구매자에게 양도하는 인수 방법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년을 한 자리에서 운영한 세탁소가 있는데, 이 세탁소의 모든 기기 뿐 아니라 20년간 비즈니스를 하며 구축한 업계의 평판, 상권, 고객 기반 등의 무형자산 등을 새 주인에게 양도하

는 방법이 '자산 매각' 형태의 비즈니스 인수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인수시 기존 부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양도받을 점포나 회사의 임대 계약 기간과 조건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 계약을 양도받기 위해서는 임대주의 동의를 필수인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자의 재정 상황 및 신용 등이 비즈니스 매매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매매는 그 사업체의 규모 및 특별한 상황에 따라 진행 절차가 다양하므로 각 상황에 맞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구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SONGLAWFIRM

고객이 신뢰하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

songlawfirm.com



송동호 대표 변호사

법률업은 일반 비즈니스와 달리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변호사의 판단 하나는 고객 케이스에 신의 한수가 되기도 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변호사들은 신중함의 중요성을 늘 생각합니다.
 고객 여러분이 저희의 신중함을 발견하고 신뢰하게 되기를,
 케이스 하나 하나에 강인 정신으로 다가갑니다.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브랜드, 송동호 종합로펌은
 오늘도 고객의 케이스를 신중하게 고민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뉴저지지사 소속 변호사 및 Summer Associates

기업 고객

- 국제법
- 근용법
- 노동 및 고용법
- 보험회사 관련 소송
- 부동산
- 상업 및 M&A
- 소송
- 이민법
- 업대인, 업저인 관계법
- 지식 재산법
- 프랜차이즈법

개인 고객

- 가정법
- 노동 및 고용법
- 부동산
- 사고 상해
- 성법
- 세금, 상속, 유언
- 소송
- 이민법
- 업대인, 업저인 관계법
- 지식 재산법
- 다국, 지역 법원 관련 업무
- 파산
- 형법

T | 617.489.1327 MA@SONGLAWFIRM.COM

MA OFFICE | 125 Cambridge Park Drive,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 songlawfirm1
- songlawfirm LLC
- songlawfirm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 런드로맷(Laundromat) 상물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킹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북서쪽 투자상가건물 11유닛, 연수입 \$110,000

워터아운/월담 드롭오프 연매상 \$150,000 좋은 렌트

보스톤 남쪽 컨비니언스 + 로터리, 연매상 \$900,000 + 로터리 커미션(\$70,000)

체스넛힐 드롭오프, 연매상 \$250,000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다운타운 보스톤 컨비니언스 + 델리, 연매상 \$650,000
Beer&Wine 면허증, 주방 확장 가능

뉴햄프셔 동양식당 + 풀리커, 연매상 \$3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롭오프, 연매상 \$155,000 좋은 매매가격 \$65,000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159,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케이프코드 동양식당 연매상 \$160,000 높은 순수익

보스톤 서쪽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셔츠유닛, 연매상 \$99,000 좋은 위치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36,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동양식당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 대학가 근처, 연매상 \$450,000

네일살롱 여러장소 연매상 \$160,000 - \$800,000

보스톤 서쪽 드롭스토어 2곳, 연매상 \$300,000 과 \$25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10,000 18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여러가지 컨비니언스 스토어 소유, 문의바람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보스톤 Full Plant+드롭, 연매상 \$71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193,000 고급동네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800,000 Beer&Wine 면허증소지, 로터리 (복권)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아카데믹 프로그램

SSAT/SAT I (New) SAT Subjects/AP 수업

최고 전문강사들의 수업
실전문제 중심수업
주말수업(상시참여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가능

전과목 개인과외 가능

오랜기간에 걸쳐 학생과 학부모님들로부터
인정받은 최고의 강사들이 수업 합니다.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각종 경시대회 준비
AMC, National Spanish/French/
Latin Exam

2016 Thanksgiving 프로그램 (마감일:11월 11일)

- 기간: 11월 19일(토요일) - 27일(일요일)
- SSAT/SAT I Class: 12월 1월 시험 대비 집중 프로그램, 유능 강사진, 실전 문제 풀이 중심 및 꼼꼼한 관리, 각 과목별 난이도에 따른 시간 배분
- SAT II Subject Class: Math IIC, Physics, Chemistry
- AP 및 경시대회 준비 개인 수업



	SSAT For Junior High School Students	SAT For High School Students
9:00-9:30	단어 test	단어 test
9:30-12:30	Class(reading/verbal)	SAT Reading Class
12:30-1:30	점심식사	점심식사
1:30-3:30	Writing Workshop	SAT Writing & Language Class
4:00-6:00	TOEFL Class	SAT 2 Subject Class
6:00-7:00	저녁식사	저녁식사
7:00-9:00	Private tutoring/study hall	Private tutoring/study hall
9:00-10:00	귀가	귀가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